옥누몽 권지 오

Carpentier

옥누몽 권지십삼 2

변춍대 편은 반술 히련연왕 현효

차셜 텬상이 울음을 나리시ᄂᆞᆫ 죄인 발비을 귀축ᄒᆞ여시ᄆᆡ
츙순을 보ᄂᆡ시ᄉᆞ 연왕을 위슉ᄒᆞ시며 엄조ᄒᆞ기을 ᄌᆡ촉
ᄒᆞ시니 연왕이 더욱 황공불안ᄒᆞ여 쳡ᄂᆞᆫ 고외 조ᄂᆡᆯᄂᆞ나
가ᄂᆡ 상이 ᄂᆞᆫ로ᄒᆞ시ᄂᆞᆫ 하교 왈 짐의 숏을 밧지 아니여 이가치
거절ᄒᆞ니 이ᄂᆞᆫ 짐의 셩의 부족ᄒᆞᆷ이라 ᄒᆞ시ᄂᆞᆫ 법기을 통
ᄒᆞ시되의 장을 ᄌᆡ촉ᄒᆞ순 거동이 ᄂᆡ여 ᄃᆡ시니 왕이 ᄒᆞᆫ몸
을 둘ᄃᆞᆯ ᄃᆡ일 업시 업셩ᄒᆞᆯᄉᆡ 상이 발쳐 몸의 나셔여
라 왕이 이욕지 쳥죄ᄒᆞ여올ᄌᆡ 상이 반기ᄉᆞ 환ᄒᆞ시고 왕을 ᄇᆡᆨ
ᄇᆡᆨᄒᆞ여 올ᄂᆡ시ᄂᆞᆫ 짐숙ᄒᆞᆫ 일을 경의 시ᄉᆞᆷ 경이 을 알ᄂᆞᆫ 경도ᄉᆞ
ᄒᆞᆫ 짐의 십ᄉᆞᆷ을 알ᄂᆞᆫ 엇지 이가치 직ᄒᆞᄂᆞᆫ고 ᄒᆞ시며
옥누을 나리시니 왕이 감누을 ᄂᆡ음ᄂᆡ 쳬읍ᄌᆞ

왈 신이 불충무상하와 금일 죄지진퇴의 욕
곡이와 우으로 이웃앙술 순사절져 봉이 영온와 적변을
나리시ᄂ 아채로 순절진충하는 도리를 삼가지 못충방
이런뒤옹이 해휘 비록 운절을 도리오ᄂ 추절이 용셔 출오
스그져하의 노복해 불해물치 이어서ᄂ 충여 보시ᄂ충
심이ᄭᅵ 죄해 불밝히고 숙용 고려해 상아신의 광저나
가계로 불너갈 국절이 잇ᄂ 한가지 도직임을 받ᄂ되잇
실주달이 업스물 생각지 못해나이 다 상이 소왈 상감
의왈 빌이 업ᄂ 변당 치알나 ᄒᆞ엿 실은 가 당의 복
거지 설은을 입ᄂ 변해 여거 죄를 한당 해ᄂ 짐을 미리 ᄂ제
해이어 본당 치 못해을 인가 줄노라 와온이 죵왕을 셩소지
촌해 상이 샹한 속담을 알외되이다 여 한 가이라도
동나아 해의 게 후욕을 당해오면 븟그러해오려ᄂ해 불

내신은 비록 불ᄉᆞᄒᆞ오나 뒤란지 ᄇᆞᆯ의 내려지어 여ᄎᆞ망극
지언을 듯ᄌᆞᆸ더니 ᄅᆞ 반의 올을 즉어ᄂᆞᆫ 영회상진ᄒᆞ니라
엇지 박노을 둉독ᄒᆞ리잇가 그신쎄ᄂᆞᆫ 일으지 발ᄆᆞ로 젼
췌년의 ᄉᆞᆯ치되 세장 찻ᄃᆞ엇더니 ᄃᆞ 줄리잇ᄂᆞᆫ 상이 그 진졍고
ᄉᆞᄒᆡ 놀 보신ᄂᆞᆫ 리온외 조와를 한웅ᄃᆡ우 쎄 츙온 불라
일러 비부라며 복ᄒᆡ 근져 소인의 계옥 보ᄉᆡ왕ᄂᆞᆫ ᄒᆡ나 엇
지리ᄒᆞᆫᄃᆡ 되오ᄒᆞᆫ 일은 위국ᄒᆞ여 불ᄂᆞᆫ 가ᄉᆞᆷ의 불착신 ᄃᆡᆫ
허ᄃᆡᆫ 볼의 안나 되여 실명을 앗기셔 국ᄉᆞ을 ᄂᆞᆫ 평치 ᄋᆞ여 난
노녀왕리 복죽을 청ᄒᆞ오여 ᄎᆞᆫᄒᆞ사 여실어 목석어어ᄂᆞᆫ 모
라 엇지 감ᄒᆞᆫ치 아니ᄒᆞᆯ ᄂᆞᆫ미 ᄂᆞᆫ ᄒᆡᄒᆞᆷ이 죄우쎄 츙동을 비
복라ᄂᆞᆫ 신어 쇄츙동어 비복된 죽절이 ᄭᅮ어 시어잇가 니
불라 부지올 ᄃᆞᆼᄒᆞᆫ은 ᄎᆞᆫ을 오ᄌᆞᄒᆞ여 내의 올ᄌᆞ 라오리
아니내라 신어 ᄃᆞ미올 감ᄉᆞᄒᆞᄂᆞᆫ ᄎᆞᆫ을 건션ᄒᆞ

여ᄅᆞᆯ너가지안닌즉이ᄯᅩᄒᆞᆫ일을계비부라어지랄
우리이가톄희시의시령을앗져국은을조타보지아ᄂᆞᆫ다
론서너알외우이다신이몰티져ᄒᆞ여나복ᄒᆞ여와거취절퇴의
일호쳔ᄒᆞᆷ티여업ᄂᆞᆫ을ᄉᆡᆼ이니라근졀ᄒᆞᆷ을ᄯᅡᆨᄂᆞᆫ후가ᄌᆞᆼ을
졍태ᄅᆞᆫ가도을졍ᄒᆞᆫ후나라을다ᄉᆞ리ᄃᆞ나라다ᄉᆞ린후
쳔하을평ᄒᆞ니ᄯᅢ의염치ᄂᆞᆫ숙신지ᄇᆞᆫ이라시ᄋᆞ운ᄒᆞᆷ
을보ᄌᆞᄒᆞᆫ작녹을탐ᄒᆞ여염치을모물ᄒᆞᆯ졀ᄃᆡ아닌ᄂᆞ니
울ᄯᅮ지못ᄒᆞ니일실ᄀᆡ의ᄌᆡ가도못ᄒᆞ거든ᄒᆞ물며쳔
하ᄂᆞᆯ다ᄉᆞ리ᄂᆞᆫ이기ᄒᆞ례ᄒᆞ니ᄇᆞᆯ신의용모을취ᄒᆞ여ᄉᆞ구ᄒᆞ여
두ᄅᆞ져ᄒᆞ시면가거니와그져ᄒᆞᆨ문을ᄉᆞᆯ펴ᄒᆞ시면그신ᄇᆡᆼ
을도타보져ᄒᆞ니ᄒᆞ늣ᄉᆞ상이그졀ᄒᆞᆫ뎍ᄯᅩᄇᆡᆯ을드르시ᄆᆞᆫ무변ᄋᆡᆼ
주와갈ᄋᆞᆫᄉᆞ뢰우리ᄌᆞᆫ신저간은일심이져로병결가치비ᄒᆞ뢰
이ᄂᆞ니엇지이가치갈박ᄒᆞ리오다시ᄅᆞ롱상외ᄒᆞ여녹쳔
ᄎᆞᆯ톄와욕시욕ᄒᆞᆫᄒᆞ돠왕이ᄒᆡᆼ을을감골ᄒᆞ여황ᄌᆞᆫ돌ᄉᆞ

이해해여상이진왕대해일오손왕을괴즁연왕이흉해지
십이여시되나여진국절을경은알어즐라진왕이뒤흘랄
연왕의물너가기을웃련저오리오나참연을인해ᄭᅵ여
나오나흠일페하의예우해서는일은단반졍되올듯터이
해는만국해서ᄭᅵ가렬가즐나는의즁셩신회는실병을
앗기ᄭᅵ여참연을ᄭᅦ티ᄭᅵ나이다상이한왕병화지여의국
신번자하되현신이불너기여경칫출노여복해철하
송올의논해되오해서디라슉일후연왕이실소해여불
너가기을청해여기소의왈
신의불초한련화을셜조와간발해서물잉손와ᄆᆡ
살이놉근북키국해온여향상주회심이간절해온거라
우젹해온밀슴올즐엽해시물보로시듯서주홍
언ᄭᅦ방념되여거늘그로다앗짓저시르셩조청

즁허오시니더욱황숑송솔이오니복지호옵이
로출이다실여본ᄃᆡ남방으로외골가빈쳔ᄒᆞ여가난허
물위허여벼살을구허이오실노라ᄒᆞ야경눈이치근
치뎍빈의근리허시이야라에졔빈일지진불퇴허ᄃᆞᆼ
다복득허여홍숙허물아지못현죽이은오효로쳔
은을져바리ᄃᆞ져변울아릐로복죵이라불충불효
허시더혈지어복빙폐ᄒᆞᄂᆞᆫ실외청셔을살피ᄉᆞ몸
빌나셜연장간쳘원의로다가ᄃᆞᆫ셜지간을죵을장구
이ᄂᆞ되게즁ᄒᆞᆫ쳐쳔현ᄂᆡ에사실이ᄎᆞᆫ지못허여ᄉᆞᆫ옵
쳘변이산ᄉᆞᆸ고늘님을너허여잇ᄉᆞ와현혁히ᄉᆞ봉허ᄋᆞᆸ
ᄃᆞᆫ은이고이ᄋᆞᆼ허오몰셔야허ᄋᆞ니육하폐히ᄂᆞᆫ쳔지옥
모시와실의ᄃᆞ득현정지을되지허오ᄉᆞ그항작을거두
사그ᄆᆡᆼ음이쳔계굴시ᄃᆞ현원의불ᄂᆡ기몰허ᄋᆞ오쇼ᄉᆞᆸ서
더라

상이왕의소을보시고갈도신래창곡을풍낭속셧으
조아못더니체로라갈숫지시금해여뎡일씨스런버려
오히시고비답을서여왈
짐이한심이신기을강동치낫실장우작이오히려
령외마을을돌나지못허고다시불너가며는소을복
나마련심석여우소실이라경의지국현충심으로
엇지차마정을바리리가고제허는대러삼상가을여국
소을조정보고적마러지말나 춘시어
숙열후연왕이삼춘소을울너허여엿시디
신은듯든온이인근이신한을때조체부러시면신하가
입은체면기물에조허여어두병에라허며든쇼을여정는근
용술허는비시어며라건체 조물허셔여빗당허을일으
나ㅂ빌일위벽으로지극히하고은혜조랑기며터

녀즘진력하여예을모온결은을죄하믈과경이별
그엿더라골퍼잇가샹여곰이른캐지한번여가근한번믈
네가눈뒤궁든비부의쳥키을관단혈지나비록굴즁와
퍅네죄봇을오나엇지이부지뎌로지로하신여가
신이목석간죄ㅁ기지레ᄃᆞᆫ련이가죄우비하오나빙축하신
쳔은을모로온네지축하ᄂᆞᆫ뎡하시ᄂᆞᆫ쳔심을모조이가
마ᄂᆞᆫ한번형지을밧ᄂᆞᆫ은즉펑쇄려옥즙박려ᄂᆞᆫ말슴
이러옥장황허물헛닷지못허오니복원폐하ᄂᆞᆫ엽과
굴오쇄신의초원을이룬워축출하여엇더하
샹이보시ᄆᆞᆫ쳔안이불열하샤당층세려
타날이짐을오지려ᄉᆞᆫ도요시지이여취평의ᄉᆞᆫ직죄슉심
죄의잇치나ᄉᆞᆫ신지강ᄃᆞᆼ이샹조죄못ᄒᆞᆫᄂᆞ로경에짐오
로베리ᄂᆞᆫ죄을비려쳔하여죽이여군신을저뎌퍼온허
시녀라

연왕이 탈일영쾌 부득이 빈번출순하지 숙왈의다
시상 소뢰여 심여변의 그장은 웃지 것으믈 빈번하사
병조해 선리 연왕이 팔편의 복복해온대 상이 온던이
옥화해 노왈 정의 발이 군신가에 조보파를 미겸이 불
병해나 비제로 정을 북파께 엽거플 곳파여는 변츠러
허니 죽의 울듯든 제해노파 왕에 부복되 죽왈은 신이 불충
허오나 폐하의은 책을 모로되 잇ᄂᆞ 나ᄂᆞᆫ 조로조흘 장이면 상
의군 경신태을 이어 변은 신간 보편하여 길게 누리는제
폐슨 온데 실에 재시을 파편 왼의 조카가 재앙을 변해ᄂᆞᆫ
황부를 늘일가 하여 초츠이라 상이 한해는 왈 정이라
더해나 왈 왕의 안파해마되는 인정은 이어 엇지 토호
현족의 범해 부을 호족든 제해난도 왕이 른숙촉왈
여섯째의 종해고는 성군이나 석숙신룡이 권연해ᄂᆞ 어

항외로라가 혼시지은을 보젼케ᄒᆞ여ᄉᆞᆫ오니 이제
실이 부귀을 탐ᄒᆞ고 공명을 욕심ᄂᆡ여 텬ᄆᆡᆫ너 불보로
근위티ᄒᆞ 불엿ᄭᅡᆺ지 못ᄒᆞ여도 체ᄒᆞ되 ᄆᆡᆺ당이 죡변이
보ᄂᆞᆫ 상고을 그시ᄒᆞ시고 다엿재 강간연국을 셜ᄂᆞ보ᄂᆞᆯ허치
안니ᄒᆞ시ᄂᆞ니가 상이 탄식ᄒᆞ시고 갈ᄋᆞᄉᆞᆫ대 ᄐᆡ명외 횡장이 어대로
대왈 동(冬)지텬동이라ᄒᆞ니이다 상이 우ᄅᆞ시대 ᄎᆔ셩등이 ᄒᆞᆫᄂᆞ
쳐연ᄭᆞ나 나ᄉᆞᆨ되 낭보왕이 죽을ᄲᅮᆫ에 가량이어이다 상이 창
연ᄒᆞ야 왈 한알이 죽으ᄆᆞᆯ 도리보지 아니ᄒᆞ니 졍의 집심이 갓체
ᄭᅬ락ᄒᆞ네 졈이 엇재 일이ᄂᆞᆫ듯재이니 되엿다ᄒᆞ고 상장나 흑을 졀
ᄒᆞ니 그ᄐᆡᄂᆞᆫ 심년ᄆᆞᆫ믜을 흑에 심년 후블을 거시엿고 울
져ᄂᆞᆫ 배실은 그ᄃᆡ로 잇게ᄒᆞ나 봉을 ᄉᆞ양ᄒᆞ매 ᄇᆞᆯ드 세스렌ᄂᆞᆫ 내ᄀᆞ야
너경이 평거상아 미년ᄉᆞᆫ 시로이ᄅᆞᆯ 칠ᄒᆞᆫᄂᆡ와 가즁으로 ᄌᆞ롱
이졈을 ᄎᆞᆺ게ᄒᆞ라 졈이 ᄆᆡᆺ당이 ᄀᆞᆨ졀ᄒᆞ야을 ᄉᆞᆯ어 ᄂᆡᆫ션으로 보

재앙ᄀᆞ븡우로ᄡᅵ재쟁화을ᄒᆞᆯ가ᄒᆞᆫ노라ᄒᆞ시ᄂᆞᆫ졍월
상월라오월옹이ᄂᆞᆫ라흉육거빙졔국월구이ᄅᆞᆯ졍ᄒᆞᆷ
서녀왓ᄂᆞᆫ경을보내ᄂᆞᆫ비음이잇지심상ᄒᆞᆫ곤신내별여
운해려오곤으로빌해변동낭족책지신여의그ᄅᆞᆯ
곳지엽셔길흉육실을ᄂᆞᆯ라려의ᄂᆞᆫ혀여거울이업ᄉᆞ
내용보동헌을엣지보내신헌으로ᄂᆞᆫ헤변모양용슈의경
뎐곰년흑라로반의ᄆᆡ러져여흐욕헝이앙ᄒᆞ헤여무비
호쳥헌그곰니보엘헤키니ᄂᆞᆫ히경이졈심을알소나와이
누욕나러물헛맛지못홀육왕신이심츄쉐의순헤와
재즘나여ᄂᆞᆫ심ᄂᆞᆫ촉쳬오나ᄒᆞᆫ히거ᄉᆞᆫ혼은이쎠의척첫ᄉᆞ오ᄃᆡ
졀이갓최무지ᄒᆞᆫ슈이물이파도오히려ᄎᆞᆺ인을이움나스신
이여지심체의삭여ᄭᆡ을갈ᄂᆞᆫ몸을바려파우의길이업
쳐ᄒᆞᆫ나지빨ᄂᆞᆫ쳬안이ᄒᆡ잇ᄂᆞᆫ다만와ᄒᆞᆼ헌ᄒᆞᆫ각이제

설괴열의잇쇄진퇴ᄒᆞ는체와엘동일평의빅대런
의우이퇴ᄒᆞ야지쳐고와염의을심가디아니ᄒᆞ는데쳬런
페을허여내별나가오나쳑계고보혀남가ᄒᆞ를재다삼장ᄒᆞ고
문병심불방허오던의전원의불너가문책ᄒᆞ여부귀을
손일혀를청ᄒᆞᆫ을즉혀여그덕를허원에술영다젼ᄒᆞ고
나배살다녹봉을거두지아니ᄒᆞ신즉염의예순상허본일
으지말은조불이시거허니여더퍼더잇는복원폐ᄒᆞᆫ는런
의라란각녹봉을페ᄒᆞ는ᄒᆞᆫ손의본분을주는오로국페런
여을노비허ᄒᆞ야허로ᄒᆞ되본ᄒᆞᆫ녕앙이엄게허호재상의고저
국런ᄯᅳᆺ을ᄇᆞ두지못ᄒᆞ여ᄒᆞ월연후뒤손바숭상인즉는계르시
ᄀᆞ연왕녹봉은소앙허말나홀성엇왕이헐일염시ᄒᆞ여
즉여원을일은옥비복연신은편안ᄒᆞᆫ나심년손군왜방
국ᄒᆞ여성은흠을일은주와한져ᄒᆞ여연ᄒᆞ지실이ᄒᆞ며의연헌흠

심이쳔션여질이라국가연왜의근심여념스러온이일장상
소올놀내ᄒᆞ야긔ᄒᆞ나그효의갈밋셔시리
신낭창국은불측무상ᄒᆞ야와은총을희바래랄열
신을셩ᄒᆞ여장최셩렬을ᄒᆞ지근평원의로ᄒᆞ가요
나일편람십은복퀄ᄒᆞ의엇슨온우저구소회로퀀
ᄒᆞ서셩여을를ᄒᆞ고연ᄒᆞ리일언엉되여셩각ᄒᆞ오견디
폐ᄒᆞ와여저ᄒᆞ신총병이신셩몰목ᄒᆞ순로숄의건룸이
시ᄅᆞ황북의로ᄒᆞᆼ여시라출위셤법의오ᄒᆞ리취저치ᄒᆞᆼ울
일운우저봇ᄒᆞ순민셩이온췌ᄒᆞ여본실롬의불충으로충ᄒᆞ
ᄒᆞ는평셩이목족ᄒᆞ온변ᄅᆞ파고리ᄒᆞ온아선은듯슨온니어
길란인은바리는남기엄을강헌령슉근내ᄒᆞ군순여다롤오
미는다폐하의셩달내이파셔졀의ᄒᆞ여시대원슈닙질록
변ᄅᆞ령앙재ᄒᆞ여원슈총채재ᄒᆞ변ᄅᆞ려ᄒᆞ자

따디옛서역목왼에 하는 청하여인거엽술
가나기시저빨으시는 옹인하시기의잇스온신하여볼
이러볼쳑방지 발은실리안셩여으로가여폐조변언
거강의페야고흠이더트보내하 날이손탐을내시편장
화손탐뵈손엽을 강양게하셔역쳔혹인불이
비둑오는지치 울쫏히지못헤오나 한량왜시오이오
히여쳐평을일워셔영흘상해시는현실인
로려는곤 근이당국의조인이편더문이엇져인
져유귀목의랄는나비더오손아암혈의져조을다가
쳐울기아퇴운원지울기우셔는흘발셔조평거셔
울살키르옛보라플폐흰깁히궁고을의게오쳐그귀퍽
울이지못하시 ㅇ황란궁쳡의쉐지연을드트슨
날을보비시네휘평지최울엇지바라과생하리잇

ㄴ나라을 위허여 치국경륜을 발허는지 반다시 룡
숙을 굿치는 범녕을 체우내 져용을 펼드며 변
설을 되홀허는 부체을 강허여 평령을 발키는 소치
을 곰허며 호쳐을 바한 랼는 고니 이는 다곰 무라 발는 상
이다 비록 당연헌 듯허나 오허여 고은 본이 그지 끼다 비허
걸기 일이랑 병허여 천백가 지의 긔증병의 발는데허여
되옴이 불일허나 심장을 국이는 허기로는 괴경을
라손 쇠자허며 총을 바는 체으로 리 결는 체며 남으로 뭇드
며북이 몰어지 몰을 핏뜻지 못허너 여엇저 봉념는 헌의는
의발이 엉어 되오 화허현 재의 보설헌 술 병으로 치료
허와허 변 반다시 원 거을 봇물는 쳬 등울 술이 허는 저너
ㄴ연에 발허며 병사 은일 국지원 거라 줄엿시니 더 법 소
거을 비양헌 후 인서을 실 거시니 인서을 어든

후치여명츌을의논헐가시오근간순숨이되
피터너거의속슴지못헤는쳔하다를여지오이에는국
가의군심이이니며가삼위이뤼로라거지법을헝쌔
즉나타상물빈홍지법라휘나타현상방쳥서혀이
목비숙려울슉앙혀여연셔을쥐옹고죄허미라호혜
의러법이휠이혜여쳔빌한번라거허별과오이일흔증
텩상혀ᄅᆞ두번저네변비옹이류뤼쾨여비한히젹는
울언벌보상거방울●께허며호화것는굴나허우불옷
ᄅᆞ혱경을며보아어든별로말헤는일은후나혜허
여비로헝소젼라경박헌경이훅이근외잇든지와좌로
궁도슉최지심이녕혀노민의부녀자고등의조궁도다
로비영츅고둥삼녀양●헌의조울져허여저고
잇츈즌는복울럿ᄉᆞᆫ흑쳥이쇄로둥진의보를드지허다

톄니ᄀᆞ뎐에인젼엽ᄉᆞ미ᄃᆞ연ᄎᆡ이가잇ᄂᆞᆫ이쳬호라
념을비평ᄒᆞ시부ᄅᆞᆯ쳑ᄒᆞᆷ을쳔비ᄅᆞᆯ서형ᄒᆞ시고져고
울일은죄ᄭᅡ술회ᄒᆡ군외그리ᄒᆞᆫ삼보일은셕가ᄒᆡᆼ
라을보며대군은십여인이요소군은오륙인을그몸
장을시ᄒᆞ여ᄂᆞᆫ편을을ᄒᆞᆯ셔ᄒᆞ여예우의을너비므올
며우ᄂᆞᆫ을ᄲᅢᆼ이곤시을삭여분ᄎᆡ경ᄂᆞᆫ을못ᄂᆞᆫ시옷을
뫼ᄂᆞᆫᄒᆞ여쳔ᄒᆡ생으신ᄒᆞᆨ고ᄐᆡᆫ거ᄒᆞᆫ방ᄇᆡᆨ을표광ᄒᆞᆼ
사ᄇᆡᆨ살을ᄃᆡᄒᆡ시ᄂᆞᆫ시ᄒᆡᆼᄒᆡ보고ᄃᆞ미잇신륙ᄯᅩᄒᆞᆫ고
쳔륙을곤ᄒᆡᄒᆡᄂᆞᆫᄇᆡᆨ살을삭ᄒᆡ내면방ᄇᆡᆨ쳑ᄒᆡᆫ된졔
ᄡᅥᄆᆞ다ᄒᆡ고을가ᄃᆞ롬ᄃᆡ쳔몸의나ᄒᆞ여보ᄅᆞᆯ드ᄃᆡ면서
나이가ᄌᆞᆨᄒᆡ신ᄀᆞ롱은이제ᄂᆞᆫ각졍은못ᄒᆞ오나져곤
ᄂᆞᆫ이ᄅᆞᆯ죄이ᄂᆞᆯ거ᄂᆞᆫ나ᄒᆞ여실이ᄂᆞᆫ쳬고젼을ᄒᆞᆫ여오ᄂᆞ이일
신온ᄒᆞᆫ가ᄂᆞᆯ오나부ᄀᆞᆫ을바리오ᄅᆞᆯ이ᄌᆞᆫᄑᆡᆼᄉᆡᆼ

운어ᄂᆡ 사라와 이ᄅᆞ대 엿ᄌᆞ오ᄃᆡ 폐하ᄂᆞᆫ 주ᄉᆞ 져시ᄂᆞᆫ 팔
평을 인ᄒᆞᆫ 말ᄉᆞᆷ은 ᄂᆡ 발ᄉᆞᆷ이 경황ᄒᆞ야 고치지 아니시ᄂᆞᆫ
날더러 실ᄂᆞᆫ 가아 쾌ᄒᆞ이다 ᄒᆞᆯ엿더라
상이 염왕의 소ᄅᆞᆯ 보시고 ᄃᆡ왈 ᄌᆡ촉ᄒᆞ야 ᄌᆡ엿ᄂᆞᆫ 운귀 명왕의 표
평은 근인 외자 나재 ᄒᆞᆫ 평ᄂᆞᆫ 이라 ᄒᆡ 군 우ᄉᆞ 지심이 남보ᄃᆡ 강
효의 자ᄅᆞᆯ 이 넘시ᄂᆡ 집이 박ᄂᆡ허 어기ᄅᆞᆯ게 ᄊᆞ지 못ᄒᆞᄂᆞᆫ 줄ᄅᆞ
ᄒᆞᆯ신 비답ᄒᆞ사 갈아ᄉᆞᄃᆡ
평의은 몸이 ᄂᆞᆷᄂᆡ가 나기 심은 의쳘의 잇시ᄃᆡ ᄅᆞ 인ᄃᆡ관녀
우ᄒᆡ 벽우ᄒᆞᆫ 평을 벌을 발이 ᄅᆞ야 평은 김을 이갖치 인ᄒᆞᆯ
ᄒᆡ거ᄂᆞᆯ 짐은 평의 복축 평을 ᄂᆡ 무지 못ᄒᆡ니 어지 붓고
평과 이ᄂᆡ ᄯᅩ 인ᄒᆡ 울 열ᄋᆞᆫ 평의여 신과 별도 이어어 변셕
지갈희 ᄒᆡ로 평은 아직 불 너갓ᄒᆞ가 속이로 ᄒᆡ야 평의
바라물 잇지 발ᄂᆞ줄 새ᄆᆞ

연왕이 길을 떠나기를 낭ᄒᆡ여 결ᄒᆞᆫ여 하직ᄒᆞ고 뒤후거
뵈오니 취후인 편ᄒᆡᄉᆞ하고 ᄒᆡ시ᄅᆡ쇼 별후 뢰ᄂᆞᆫ 신쳘블
원이 나경이 한번 가별로 평이 빈듯 황상이 ᄂᆞᆯ라 뒤ᄂᆞᆫ 올
의논ᄒᆡ시ᄅᆡ오 황상외 쳔ᄃᆞᆫ 신의 해ᄋᆞᆯ은 유석의 낫타나
내경의 가ᄂᆞᆫ 마음이 ᄉᆞᆯ한 갓ᄋᆞᆯ 믈리과 경은 아직 쇼로 경갓
다가 속이 ᄃᆞ리와 국가ᄋᆞᆯ로으 편ᄒᆡ ᄂᆞᆫ 일 박셔 살바라
간ᄉᆞᆫ탕이 다ᄃᆞ시 평을 불지거 ᄒᆞᆯ 뒤 모ᄒᆡᆯ 지랴 조히 가셔기
뇌 형복을 누리라 왕이 함ᄭᅵ ᄒᆞᆯ 원평 모이의 ᄡᅵᆺ초ᄉᆡ어 셜어
불ᄒᆞ궁 무상ᄒᆡ온 낫ᄌᆡ 형은을 [illegible] 이ᄅᆞ켜 잇가 오작 남손의
속을 축ᄒᆡ 낭이 ᄯᅥ 이외 퇴ᄅᆞᄒᆡ며 ᄃᆞᆼ장을 차ᄅᆡ 받ᄃᆞᆼ 펼
쳐상이 엿지 쳘별ᄒᆡ 실ᄂᆞᆫ
황상 동문 쳔 연왕 뢰셩롱계 낭ᄌᆞ 별ᄅᆞᆫ 왼
상이 셩내 평의 ᄒᆡᆼᄅᆞ ᄒᆡᄉᆞ 딘왕을 보ᄇᆡ 실ᄒᆡ 왕의

손을잡으ᄉᆞ용안이흠연ᄒᆞ샤왈이ᄂᆞᆫ상뎨의
조반을뉘가ᄒᆡ변여기난친연치안이ᄒᆞ엿시리오이졔
장방온상의ᄒᆡ조을장ᄒᆞᆺ엿지이오피오졍은졔삼보
종ᄒᆞ여부소이잇셔졍의부모을롱호ᄒᆞ다엿완이갑
히롱횡ᄒᆞ여복지즉왈신이실년을졀ᄒᆞ의군신즐오
나군신쳬ᄒᆞ지엄ᄒᆞ와지쵝쳔인을곤쳐치못ᄒᆞᆯ양ᄒᆞᆫ이
쳬ᄒᆞᆫ원의도리가오ᄂᆡ혼몽이ᄇᆡ쵹평ᄒᆞᆫ오나쳘안을
우리와의회ᄒᆞ온지라이졔잠간뢴안을우러ᄇᆡ앙ᄒᆞ온
줄나이다상이흐칭ᄒᆞᆫ나쳐ᄉᆞ쳥신거뢰ᄒᆞ뢰ᄒᆞ시ᄂᆞᆫ진왕다
쳐일은ᄉᆞ귀연왕의쳥흔진ᄇᆡᆫ이엿지믈니가ᄂᆞᆫ졔싱
이라ᄒᆞ뢰오ᄇᆡᆺ랑이ᄒᆞ가의조쳐을흔ᄒᆞᄂᆞᆫ진신병소의
흥ᄒᆞ뢰여믈무당이녹슈쳥산의몰니랍ᄉᆞ곡소일ᄒᆞ믈
손구ᄒᆞ여엿거ᄂᆞᆯ석ᄒᆡ안ᄂᆡ뢰오ᄒᆞ시ᄂᆞᆫ날쳥ᄒᆞ구을ᄇᆡ결오

시냔생이죽ᄉᆞ나야가부복ᄒᆞ온ᄃᆡ상이옥비의ᄒᆞᆼ온
불복어왕을졀ᄒᆞ시ᄂᆞᆫ왈졍은ᄒᆞᆼ왼의로ᄒᆞ라가낭
쳘을박고ᄋᆞᆯ어부쳐지나을오길이쳥북을구리다가쇄
이쳔컨의조회게ᄒᆞ자ᄒᆞᆯ세ᄂᆞᆫ오ᄒᆞᆫ잔을난셩을죽ᄉᆞ
왈낭은이ᄒᆞᆯ을박고연왼다라백년회로의라ᄒᆞ다북ᄒᆞ
여김을이지왈나난셩이황승읍길의날이ᄂᆞᆫ즈게상
이환운ᄒᆡ실ᄉᆞᆫ벙가올ᄃᆞᆯ네실어뫼삼조다보시며ᄂᆞᆫ
재회을금치못ᄒᆡ시여자왕이조정ᄒᆡ신을혼례ᄒᆞ자
별ᄒᆞ설ᄉᆡ환을나가ᄂᆡ려왈흠션ᄒᆡ령츌지뵈의흠ᄀ
퇴ᄒᆡᄂᆞᆫ자누울한신갓치슨이해ᄂᆞᆫ리뎔지심을보견
리노뵈등이봇그렵지아니ᄒᆡ로왕에ᄌᆡ왈아장은츌
쳑독노죄이시어셩혹을로으ᄉᆞ쳥셩을ᄌᆞ뢰ᄒᆞ소셔
평국은퇴지진뢰의ᄒᆡ저ᄃᆞᆯ으와쳥ᄇᆞᆫ지ᄒᆡ을

되하ᄂ대타지젼뵌하여현은을쥐바린듯호오
내불외와태실이잇가황가노을희하여왈약정의흉
죽입의와ᄅ인의치순지변지야시여욱퇴하기를쏫ᄎ고
여황가나초왈고복는변(만)는나청시번화을벗리다
누리ᄂ로취ᄒᆞ야항산의채탕현물셕야소조현흉견
본시비쵸원이라ᄒᆞ야말년쵸소을일초의월별ᄒᆞ여졸업
현심되을이기지못ᄒᆞ여국대왕이봇ᄂᆞᆫ위쵸ᄂᆡ전왕
라작별쳘션ᄒᆞ더혼년ᄒᆞ여정욱낭주의낭평이ᄆᆡᄒᆞ년
왕이초왈화평의흉ᄂᆞ면화ᄒᆞᄂᆞᆫ냥황ᄌᆞ의아ᄂᆞᆫ비라
츙히ᄅᆡᆫᄂᆞ을ᄎᆞ팔ᄒᆞᄂᆞᆫ방신가젼되ᄂᆞᆫ인을ᄎᆞᄌᆞᆯᄒᆞᆫ관
왕이혼년ᄅᆞᆷ왈나와평ᄎᆡ로와ᄒᆞᄂᆞᆫ바ᄂᆞᆫ산슈롤ᄀᆞᆫ졍이
되임의형이병승지ᄂᆞᆫ을졈ᄃᆞᄒᆞ여시니한번밀을ᄎᆡ
칙ᄇᆡᆺ초심방ᄒᆞᄂᆞᆫ계ᄒᆞ여산쳔경리을ᄀᆞ경ᄒᆞ이ᄂᆡ라

오왕이 흐거울 다 아 티ᄂᆞᆫ 일 반져 봉을 맏ᄂᆞᆫ 이ᄂᆞᆫ 별 혈
셔상 장군ᄂᆡ 군이 고준 곳을 다리ᄂᆞᆫ 와 일변 웃ᄂᆞᆫ 일변
우러 ᄲᅡᆯ 쓰장은 노의 와 ᄯᅥ서 상군을 ᄲᅢ오믈 거ᄅᆞᆯ치
못ᄒᆞ되여 상군의 궁일 형셕은 현족의 아름다온 일
이라 쳔혼이 호 찬란ᄒᆞᆷ을 너우믈 이겨지 못ᄒᆞ야
이와 총난셩을 춘젹 각별 인ᄉᆞ 되여 왈 원ᄎᆔ 빅은 총
이 진현 총명을 이제 흑셩 총의 현복을 누리ᄉᆡ게
내 회ᄒᆞᆯ 덜을 치 못ᄒᆞ니 니 이제 니 ᄂᆞ이 쉬산 낙일이
라 이곤뫼의 예관 일 주의 노회를 ᄒᆞᆷ도 주 나여 ᄒᆞ여 빅
숙외 순물을 흘니ᄂᆞ 날셜이 외주ᄒᆞ고 ᄒᆞ니 울져 ᄒᆞ는
여쌍불 너 패회 궁인 가시 초어 칠을 나려 시여 빈길이 흥
삼일ᄒᆞ여 예변 우낭 닐여 외의 화좌ᄒᆞ여 펄벌 추호 동순
뫼모 이어 가ᄂᆞ 체조 외 나퍼 누츅ᄒᆞ 숙갓ᄒᆞ여 난셩

졔낭이여시탐ᄒᆞ여옥지재왈너의ᄎᆡ자젼일
라쥴오거늘엇지진회을간쳘ᄒᆞ되오ᄒᆞᆫ번니별이ᄌᆞ즐
지라박비로뉘가리라가긍연을보ᄂᆡ웃ᄂᆞᆫ왈쇠간의벗
지못헐거ᄉᆞᆫ졍공이라쳥동이재외로갓치ᄉᆞᆫ파병의
노ᄒᆡᆫ이실은동거지의을경ᄒᆡ여쇄ᄅᆞᆫ란ᄒᆞᆫ신체를ᄉᆡ
로ᄒᆡ더이졔쳔ᄒᆞ다ᄒᆞᆫ에쳡ᄅᆞᆫ로부지불쵸의영화
국진ᄒᆞᆫ재의로공로ᄒᆞ시ᄂᆞᆫ노벽년지ᄀᆞ티애의원을
일외서나일시별ᄒᆞᆫ을쳠재못ᄒᆡ여숭인될봇ᄒᆡ와
ᄎᆡ갓죄가ᄒᆞ나흘니여ᄂᆞᆯ옥형은ᄌᆞ지쳔이업ᄂᆞᆫ지라엇지이ᄂᆞᆫ흥
염ᄉᆞᆫ길을라ᄒᆡ가지로젼ᄌᆡᄒᆞ여보니여ᄃᆡ다시왓ᄉᆞ
쳡등도술쿠ᄉᆞᆫ당이하엇지비감치아니ᄒᆡ로쿠ᄂᆞᆫ이의
쳔옥낭낭을이로재ᄒᆡᆼ생ᄂᆞᆫ이ᄂᆡ지ᄂᆡ도를너ᄒᆞᆫ번와
만뇌가하연계쳘의연아ᄆᆡᄒᆡ여쳘ᄅᆞᆫ게ᄇᆡ광슈ᄉᆞᆫ별되쇠

조연ᄒ야 ᄎᆔ ᄉᆡᆼ흥으로조ᄎ 뎐ᄒ여 ᄒᆫᄃᆡ여 ᄌ녕ᄒ왕
이형조지빙의 공셩산퇴ᄒ던 장졍방을 조ᄎᄒ여 젼
츌군을 ᄎᆡᆺ던 지리을 가셔 흉관을 ᄃ려 직ᄒ니 쳥산벽은
을 바라보면 이 남쳔을 노시는 ᄎ복인샹 회와 옷ᄂ을 ᄀ
나뢰 형현ᄒ니 ᄂ기 축즁이 셩ᄂ의 너엇더라 노변의 ᄌ경
ᄒ는 남녀노쇠 뉘 아니 칭찬ᄒ리오 셩츙복호와 계영조ᄒ
이ᄋ즉 옥을 가져 졀쳔ᄒ여 도조의 이어더라 쳔ᄉ 평균일
반남라 남영의게 오졀 ᄒ을 ᄉ송ᄒ여 ᄉ니 형셰 옥션의 졍
의을 호ᄒ여 ᄂ니 츙셕지어을 보ᄒ라 ᄒ시니 엿 왕이 황강
복힝ᄂ 뵈즈ᄂ라 ᄒ황쳥 ᄃ 편의 회졍 ᄃ이라 ᄒᄂ 셩의 엇
셔ᄂ부로 조ᄎ던 봉이 죽산이요 남으로 ᄌ강 츅을 임ᄒ여
축회 봉션 너리보산 쳔뫼 가뢰 형라 졍ᄋ ᄊ 졀승ᄒ시고 광
너와 병쳔ᄒ는 조자라 ᄂ황이 육ᄯ여 옥산을 ᄃ 거 ᄒ의 편
지오ᄒᆫ 곳지라 봉ᄒ의 ᄃ을 ᄯᄂ 일과 리 기을 저

으니겁소청되러여화러해믈축러지아니안으로
지엳당은철쳬엳지옴기의벌엳을일은미더되복인
취소온죄명으로봉넝혀온을부인취소온우편으로엳
지편온황복인취소니을복인취소엳넝혀온동아뫼
은뢰여엳거낭모굴온뎌이보엳지헌온박실셩지온나
복은엳지울축뎌이보박고굴출회구온출노모회을되길
미너취아취소로엳으로온회평온철온을홍출떼
너엳왕이거취뎌는편후동셔의힌각을드느너시며
문편징옥이빌동물덩머서다엳관의엳힘이초젼동
의일오퇴톄택을숑소되는각，회소을평헌후상냥
다뢰왈별원이숭심회의파온어강하드는자리볼하
의잇는톄을청범소형온옹강상뎨잇는셩하수어는각
월월졍관동각킹소현노혀졍출보당으구회상법이라

가ᄂᆞᆫ경리졀승ᄒᆡᄂᆞᆫ가이쳘쇄ᄒᆞ니졍낭은셩씨ᄅᆡ죠
거쳐ᄒᆞ게ᄒᆞ라삼낭이ᄇᆞᆫ냐ᄅᆞ숙일후왕이낭쳔을보시
ᄅᆞᆫ낭부인다삼낭을거ᄂᆞ려별원을구경ᄒᆞᆯ서ᄉᆞᆫ디봉
이ᄒᆞᆯ너시니암셕의졀승ᄒᆞᆷ다왼념의유슈ᄒᆞᆷ여산셕
의화려ᄒᆞ편라원도의통창ᄒᆞ미부비별산일모ᄒᆡ쳔
경이내부ᄒᆡᆺ시니슉심여쳐별원을낫ᄂᆞ치구경ᄒᆞᄂᆞ
황혼월셕을ᄃᆡᄒᆞ여도화ᄋᆞᆯ셔취ᄂᆞᆫ이월노ᄒᆡ념년홍
진의쳠혜ᄒᆞ엿ᄂᆞᆫ홍곰이오ᄅᆞᆯ이야쾌히ᄇᆞᆯ알니조라
ᄒᆡ더라의일삼낭의쳐소을평ᄒᆞᆯ셔난셩이위왕ᄒᆞᆫ과
지낙은산슈의잇나벗슨평은너모압강ᄒᆞ여혼아어용
와거ᄒᆞᆯ비요우화앙은유벽ᄒᆞ여승니ᄂᆞᆫ산의쳐소ᄒᆞᆯ거
셩이비산임슈ᄒᆞᆫᄇᆞᆯᄂᆞᆫᄇᆞᆯ슉ᄒᆞ되ᄃᆞᆫᄌᆞᆫ운누가쾌일이다
쥰운누을거쳐ᄒᆞ되ᄒᆞ여아언슉인왼을ᄃᆞᆫ운유

숙은셩인의혈ᄆᆡᆨ오문어당츌은분주의일흔이
라쳡은누의치ᄂᆞᆫ쌍쳐기와츌빗ᄂᆞᆫ뱡의짓기가소광이
옹이란ᄒᆞᆫ각을쥭소쳐연낭이소왈쳡은본ᄃᆡ연ᄂᆞᆫ오
ᄐᆡ미비소왈이라조용ᄒᆞᆫ즁모각을쥭소쳐왕이옷
ᄅᆞ왈쳬낭의쳬소경ᄂᆞᆫ이탐명ᄒᆞ고우ᄒᆞ니가셔협확
ᄒᆞ야라ᄶᆞᆨᄒᆡᆼ각을느러지을셔슌즁ᄒᆡ신금비을삽낭
올난ᄒᆞ와죽니지잡낭이각ᄋᆡ쳬소로갈셔난셩이은삽낭
아쟝죽시ᄋᆡ쇼셩여인을다려ᄃᆞ과은누로가니기간셩은ᄃᆡ
장현이ᄒᆞᄒᆞ며숙쳬로여ᄃᆡ니셜낭은즁모각으로가ᄂᆞ
연낭은셩ᄋᆞᄒᆞ여인셩을다리ᄂᆞᆫ즁모각으로가니라츅왈
후쳬소을느려숙키ᄒᆞᄂᆞ니거쳐을정ᄒᆞᄂᆞᆫ나쳔연을베히
를길셔왕이양관을보셔ᄂᆞᆫ문쳐존을누의일ᄂᆞᆫ이현평
이즁ᄂᆞᆫ이다쇄목ᄂᆞᆫ숙ᄂᆞᆫ지넘에도에ᄂᆞᆫ쳥셔ᄅᆡ셕은숙
죵ᄂᆞᆫ괴변영이라숙키평을반양을쇼ᄒᆡ길을인소을니뤄

궁이졍긔을알ᄂᆞᆫ이슬고오남으로부족ᄒᆞᆫ숀빈이
울ᄂᆞ쳥ᄂᆞ헤여볼무울ᄒᆡ여ᄂᆞᆫ양호로일ᄃᆡ쟝강이을
너몰결에간완ᄒᆞ여가울울절관ᄃᆞᆺ쳬셜등츄벽
효ᄂᆞᆫ안현의벼랏ᄇᆡᆫ곤리든혈미봉은쳑이안외배렷
ᄂᆞᆫ지파혜궁이소왼긋지동홍헤ᄃᆡᆫ거지려난쳔이쳡
듁ᄒᆡ나이쏘ᄒᆞᆫ복지졸다원본울프리간벼ᄂᆞᆫ쳔이장
쳥울알ᄂᆞ헌한영지헌나자아헌ᄒᆔ되쥴일츌여쥴홍
벅ᄐᆡ한거울로헤ᄂᆞᆫ듯계ᄂᆞ모ᄂᆞ리ᄯᅥ셔골이아리션ᄒᆡ
황복인이불복인라파완난셩은범이오ᄂᆞᆫ너호리산듕
의내뢰온호봉보든셩이러욱어ᄯᅥᆺ복호다허더화난셩이편
홍이하당영지허여동을구의모든네숙호모ᄂᆞᆫ창이쥭허평치
ᄒᆞᆫ여불빅외아호삭일남강이찬난ᄒᆞ며비란쟝다두글
발이곳ᄂᆞ지거된시너오히ᄅᆡ손ᄒᆡ더보을변치못

ᄒᆞ여시니 연왕의 검소쳥한ᄒᆞ미라ᄒᆞᆫ 곳지 ᄋᆞᆫ
아펄일구습이 내무궁ᄒᆞ더라 쳘복려우로 흉ᄒᆞ구을 일
외식이 동은 흉행각이 내양희 ᄉᆡᆨ기을 보료ᄃᆞ 죄북
단아거화 이로을 흔 이샹이 ᄂᆞ엽 홍쇄 ᄒᆞ며 촐난
ᄒᆞᆫ이 ᄂᆞᆫ 들경을 완샹ᄒᆞ며 ᄂᆞᆫ 곳지 온세으로 금수경이라
ᄒᆞᆯᄃᆞ수을 지어시니 츅경을 보ᄂᆞᆫ 곳지라 젼ᄒᆞᆷ이 ᄒᆡᆨ을
가산을 무으ᄃᆞ 두낫 ᄂᆞᆫ 습은 ᄎᆡᆨ다아 ᄒᆞᆫ 베틸 ᄒᆞᆯ 벼일 ᄉᆞᆼ
호용이 가ᄌᆞ우 화졀ᄃᆞ 되니 번ᄋᆞ게 계ᄉᆞ 나으로 ᄒᆞ울
일외영롱ᄒᆞ여 방으로 녹음이 쳡ᄒᆞ야 울동을 닛나리
쳑ᄇᆡᆨ을 ᄅᆞᆯ 너ᄂᆞᆫ 긔운 뒤 퍼은 ᄌᆞᆨ ᄒᆞ의 연못ᄉᆞᆯ ᄀᆞ 색
뒤ᄂᆞᆫ 어불 이며 ᄲᆞᆼ 현위ᄋᆞᆼ이 물을 싸 화 노니 이ᄂᆞᆫ 하
평을 완상ᄒᆞᄂᆞᆫ 곳이 온 벽으로 벽옥ᄂᆞ을 일워 ᄒᆞᆫ
ᄒᆞᆼ옥ᄂᆞᆨ은 재옥ᄒᆞ며 ᄇᆡᆨ학 ᄀᆞ퍼 무뢰 지어 왕게ᄂᆞᆫ

방학혈봉이수상의와시잇더욕ᄆᆡ되을ᄉᆞᄌᆞᄉᆞᆼᄋᆡ
허을졍을보ᄂᆞᆫ곳지라ᄒᆞ군이북인ᄃᆡᄂᆞᆫ부을다ᄒᆞᆫ
두ᄂᆞᆯ구졍ᄒᆞ며두ᄂᆞᆫ은수의몰은ᄂᆡ잘ᄎᆡ을버히ᄂᆞᆫ늑
이질ᄒᆞᆫᄒᆞᄂᆞᆫ비ᄇᆞᆫ이남긴ᄎᆡ여동풀ᄇᆞᆨ조와잇ᄂᆞᆫ출을
모하교육을ᄒᆞᆸ호ᄅᆞ북허ᄆᆡ속부흑도ᄒᆡ여지이일
셩황이흉보ᄃᆡᆼ을구경ᄒᆞᆯ셔봉회노졍ᄒᆞᄂᆞᆫ산녕ᄒᆡ
회ᄒᆞ여채연헌흉ᄒᆞᆼ은좌편의나붓기ᄂᆞᆫᄒᆞᆫ로ᄂᆞᆫ숙녕을
홍중이형냥ᄒᆞ여편수을이룰너자흑베을반히ᄂᆞᆯᄂᆞ
셜낭이졀ᄀᆞ면히도와어달편자필노문젼의녕졍
너울북잉이황북인ᄎᆡ낭ᄃᆞᄒᆡ달을오지셜ᄎᆞ와낙ᄒᆞ고셜ᄃᆡ
인강의녕은자ᄒᆡ엿더니즘일뫼보ᄂᆞᆫ도ᄃᆡᄒᆡ여ᄒᆡ오ᄂᆞ
으며몰의돈의셜낭이ᄆᆞ져ᄃᆡᆼ의울나좌평ᄒᆞᆫ후ᄎᆞ을
나와ᄃᆡ평ᄒᆞ니ᄐᆡᆼᄌᆔᄒᆞᆨ비ᄒᆞ여ᄆᆞᆺ서ᄃᆞᆷ엘ᄒᆡᆼᄐᆞᆫ

뢰더라죄우ᄂᆞᆫ변ᄒᆞ여ᄇᆞᆯ벽사챵이ᄌᆡᆼ결ᄒᆞᄂᆞᆫ한ᄂᆞᆫ
의한연이봉ᄒᆞᆫ뒤상ᄂᆡ더외거본ᄃᆞᆯ노고박옥길흔
동의자디쳐ᄋᆞᆯ쳣작ᄉᆡ여평벌옥와(근)디북ᄌᆡᆼ을열ᄂᆞᆫ
봉ᄋᆡ숙츙ᄉᆡᆨ디의쳑나간을트려라화이ᄭᅩᆺ을시여ᄂᆞᆯ
홍ᄋᆡ벽화ᄲᅡᆫ발ᄒᆞᆫ일시상벽화ᄋᆞᆫ츅엽짐ᄃᆞᆫ텃사ᄃᆡ
그슉현녕티ᄲᅡ한아현롱쳐갈스로ᄃᆡ여곰물우이ᄋᆞ
연혜여질ᄂᆡ자일졈현롱의흥경손귀ᄅᆞᆯᄂᆡ거ᄋᆞᆯ뒤
군이본왈이쵸려어쉬나군ᄌᆞ셜상이뎌왈원츙의슉
간별강이잇나여혀ᄃᆞᆫ연ᄅᆞᆯᄂᆡ임질어쳑정이보견
ᄂᆞᆫ뒤츅견조실이효모쵸쵀혜ᄂᆡ쳥헌여벽ᄋᆞᆯᄂᆡ부
뎌ᄃᆞ은벽현거동이본소의혀소키좌우로평시ᄋᆡ들ᄂᆡ시
ᄂᆡ별슉쉬졔디변화거상이ᄅᆞᆫ연혜뎌라봄을열ᄋᆞ옥
단벽일편의쳑샹의ᄂᆞ엿[illegible]을여이ᄂᆞᆫ벽상의길ᄂᆞᆫ보

시어온손의거쇄러벅시빈충ᄒᆞ더니신호아쳑을쳥결
헌충항쇄구니상연ᄒᆞ라일나쳐상의왼출등녕너
츙ᄒᆞ홍이백실ᄒᆞ여신형츈빈현피라난일이상두외거 문
ᄃᆞ올나ᄃᆡ실죽을ᄃᆞ년난이욕ᄒᆞ을부려ᄒᆞ당츈너곰
쳥운여녕ᄒᆡᄃᆞ쳑청운ᄒᆞᆫ, 해여형통이ᄃᆞ나녀병월
이곳ᄒᆡᄂᆡ원츙의잠든ᄒᆞ얏이일시의초츄ᄒᆞ여ᄆᆡ편ᄌᆡ
나라와ᄃᆡᄒᆞ더니 츙혹난지라휘듕이우으며관홍자와이
돈너화목용ᄌᆞᆫᄂᆞᆫ이버렷ᄃᆞ팅춍으로울을ᄒᆞ야누득으
도바ᄌᆞᆫ술여ᄉᆞᄂᆞᆫ지쳐펄다가ᄂᆞᆫ데용팅이시순ᄉᆞᆫ미을비
호ᄉᆞ알지라좌핀을색봉을쳐ᄃᆞ가둔은안산의나복ᄒᆞ여
산자홍력이대영가을화랑중여천위의거상이다ᄉᆡ
뭄울쵸ᄌᆞᆫ당여영양이아ᄌᆞᆫ울잉쇄우ᄃᆞᆫ몸외의연후ᄒᆞ더
피근이니ᄂᆞᆫ이우으며손을읻고러소당ᄒᆡ피영양이

티복인을보셔송당과졍녀ᄯᅥᆨ로텹하ᄒᆞᆫ노졍을
거러술난간의축쟝을빙디러ᄯᅥ시니노쇠한병리옹
용한션비졍과쥭인을보아일지라버들은부칭하
의러녀노ᄅᆞ날지의도쳐온간졍물이웃허나내증의힘
쓰비오불시지속은왕복인을본울온손시의는산가ᄉᆡ
을본바ᄃᆞ니곤조을셤기미라납버ᄃᆞ복을평주게젼을
쳔리경허여진짓가흥이오복너의본ᄉᆡᆨ이라울부인여려
용쟝한ᄒᆞᆫ불ᄈᆞ과이여ᄒᆞᆫ께ᄒᆞᆫ왕이소ᄇᆞᆯ게졀ᄇᆞᆫ의조라
오귀빅순여의ᄒᆞᆫ내밀려흉하일빌고ᄎᆞᆫ나ᄎᆞᆫ니울두
ᄅᆞ보니여지복ᄲᅦ최여니과조연ᄇᆞᆼ이송이ᄃᆡ왈성군이매
샹을바ᄅᆞ시고황신하시흉옹아ᄒᆞ라쟝이여지로녀
되기울변어ᄅᆞ이슨일ᄌᆡ계ᄉᆞᆫ히러과허군이웃고거러ᄑᆞᆯ
연ᄉᆞᆫ은연ᄎᆞᆫ비쟐ᄃᆞᆼ한내건로ᄂᆞᆫ한이소ᄇᆞᆯ게로ᄅᆞ

니구경코져되노라ᄒᆞ니연안에옷ᄂᆞᆫ내면을보ᄆᆡ뒤흘드되가
니싱여가잠실을지ᄂᆞᆫ홀이ᄂᆞᆫ을ᄭᅴ여구에울울녓
싱여일변생을ᄎᆡ여곤빗갓혼고ᄎᆡ울ᄉᆡ너펏더라향
복인이검어보ᄂᆡ항왈나ᄂᆞᆫ네가조낫시니ᄃᆞ만여기ᄂᆞᆫ되
ᄂᆞᆫ이졔안고근본을닐어잇져보고평피여ᄂᆡ라노복인이란
왈ᄂᆡ옥ᄂᆡ용의잇실졔란ᄌᆞ리을ᄊᆞᆯᄂᆞᆫᄉᆡᆼ을ᄎᆞᆯ리
슉두졋괴와슉쳐복병을중셩이마련여이졔별동
온복키로쳔의ᄲᅧ로가난편셩이불피여ᄂᆡ불봇쳐여
거두지안니ᄒᆞ면왕이소이ᄂᆞᆫ왈그일은아츌리옵ᄂᆞ니이방슈
기울니ᄭᅴ가라ᄒᆞᆫ거라되검기치ᄒᆞᆫ니보친은혹변셜
명을보죠혀ᄒᆞᆫ인도ᄒᆞ여일쳬와이쥬니분벽순찬이ᄒᆞᆯ
난편뒤록평을즈ᄃᆡᄂᆞᆫ되ᄒᆞ롱ᄒᆞᆫ단의구평을반

리ᄒᆞ여 눈ᄃᆡ 한번이 붕ᄒᆞ던 렴질이 여셔 쳥쳥
ᄅ치ᄒᆞ셔 국전ᄒᆞ더라 방중의 금슈ᄉᆡᆨ을 ᄃᆡᄅ보온 장
울거러ᄂ ᄇᆡᆨ옥상의 옥형이 놓엿시니 계낭이 열ᄂ보니
중낭의 쌍봉을 슈놓앗시니 ᄎᆡᆨ모 현쳐 절의 종묘 헌슈란
이 죽히 달초화ᄒᆞ여 경안 묵헌지라 허ᄅ보아 쳥환 슈
나연동이 초발쳡 은 분ᄃᆡ 로 물이 진와 방괴기와 국쇼
뢰ᄅ 방ᄒᆞ셧ᄅ 깁베기올 뢰영 셩손임으로 아 나 상공이 고십
이 명랑의 펼구 돌물ᄅ 와어 시ᄅ 동시의 출 빈ᄒᆡ 물나
으로 안싱ᄃ 벌원 울지어 상공이 조신 극쳔여 ᄒᆞ연 육현열
쿨노저 불을 가파옹 눈 손퍼던 술으로 바굴을 회롤허나 뉵
교반 출허ᄂ 화ᄒᆞ 불혀이라 난형을 홍보제 바호셔 보단옷
더여ᄂ 반울ᄅ 펴여 모라 관홍 가의 이근ᄂ ᄯᅢ동이 국ᄒᆞ여나
려쳥임을 ᄲᅡᆺ보며 항당을 맛보아 ᄇᆡ반을 올니 ᄉᆞ숑의

황낭별라 동궁의 황라최ᄂᆞᆫ 실야지 비을 졉ᄒᆞ여ᄉᆞᄂᆞᆫ 물빗
회박을 ᄯᆞᄅᆞᆫ 장상의 양을 장이. 변ᄒᆞᆫ 공시을 노리ᄒᆞ니 졀계
의녀ᄋᆞᆫ ᄃᆞᆫ기옥 반의 가득 ᄀᆡ 흘ᄒᆞ며 공이 부인ᄒᆞ라. ᄒᆞ와 발ᄂᆞᆫ 노복황
홍 움식을 ᄂᆡ부ᄋᆞᆫ지 오랜지라. 공이 일빗 부ᄒᆞ며 옥 셩신ᄒᆞ도다.
이날 안ᄂᆡ을 쳥ᄒᆞ여 반일을 즐기ᄂᆞᆫ 왈 공이 일ᄒᆞᆫ 롱가 녀셩
년이로다. ᄒᆞ더라 ᄯᅡ을 황낭부인을 불너 왈 ᄂᆞ혜 상낭의 집구
경의 슈일을 잘 ᄂᆞᆯ 앗ᄉᆞᆸ시며 너의 낭인은 낙쳔 년을 미낭ᄒᆞ나
노변 일은 부인 나 쳔 연으로지 연당의 삼낭을 오모 안 ᄂᆞᆯ기
울ᄂᆞᆫ ᄯᆡ 이일은 염남 편의 서 ᄂᆞᆯ ᄂᆞᆫ 쳬 삼일은 녕지 ᄒᆞᆫ의
보이ᄂᆞᆫ 회 ᄉᆞ월은 초ᄒᆞᆫ 회구은 후 쳥으로 되리을 충 게ᄒᆞ라
난 부인의 ᄎᆡ 녕 쥐ᄂᆞᆫ 조리을 쉬 연 낭이 믈의 외야 와. 비 슌ᄒᆞᆯ
새 회 부인의 못ᄂᆞᆫ 말 동 각의 일 리 노라 잇ᄉᆡ 일 여셔 심
오이 잇서며 낭을 못ᄂᆞᆫ 방쳥이나. 강치 도여 ᄒᆞᄂᆞᆫ 소

련고로져ᄒᆞ여잇더ᄒᆞᄂᆞᆫ연낭이비금당의뒤ᄒᆞᆫ
이소왈너ᄂᆞᆫ그노쥬을봇치지말나가장귀졍이ᄃᆡ로오리
라연낭이아라듯ᄂᆞᆫ함소ᄒᆞ더라오쥬일후논ᄂᆞᆫ을보ᄒᆞ바
쳔을기ᄋᆞᆷ민이구경ᄒᆞ실가ᄒᆞ나다보아ᄒᆞᄂᆞ로리아
파야일을복인이황부인샹낭으로진쳐ᄒᆞᆯ새ᄆᆞᄋᆞᆷ즁노
가을쳥ᄒᆞ여당상당ᄒᆞ와황발노쥐구홈모ᄒᆞ듯손군을
녀요ᄒᆞ여이스되본이니즁ᄋᆞᆷ이슬박ᄒᆞ여가듯이안쳬졀슉
쳥찬을함초ᄂᆞᆫ복ᄒᆞ며뎨부인복ᄂᆞ을칭홍ᄒᆞᄂᆞᆫ고부
키을흠설ᄒᆞ여파연낭현ᄃᆡ영ᄉᆡ편동흥부녀을보ᄒᆞ
출기ᄂᆞᆫ온흘희구은복쳥의동궁미복로와되ᄃᆞ을칭편쇠
뒤에갈번안북으로두벅벼ᄒᆞ올나연왕이오손홍으로
존실실시령의목화현빛술어용농현안식이즐흥을
존니어나보ᄂᆞᆫ뒤우연감흥ᄒᆞ여홀죄고셤이스신로셩

타이어 슈변혼경혀매 강북혀는비 공경하니 신혀여 일흘
고반혀니 냥책반최고 소을보이 부향갓지 매졍 혼근 관소
훨졍외 못혀오 볼쥬지 혀나 보라 충변 감북혀더라 하
소울 졍돈혀던 일실이 화가 줄녀 난천을 보쳐 농호 만
의재 효을 라줄 녀강의 상낭을 다회논 상휴 종밧고 소
일혀니 이를 바산 종체 상이 보물의 하은이 차 일는 운제
우날 낸 남총이 로화 홍여 차사는 히는 초흥이 혀 왕이 지
현당외 보천을 뵈 요혀 이홍 퇴 북인이 단홍가 이가서
불근 현녀 왕이 경왈 비오는 퀴어지 가서 보서 이 키왈 연낭
이옥구 울가쳐 와쳐 가이자 왕이 북느 좌우로 상흘 가쳐
오회 훈녀 손렴을 손여 상훌 징근 단홍가으로 갈셔 닐너
쇄노 회부는 소회를 니거 굴을 녀결 왼천을 하람근
녀도회 의는 부즐이 불이 그녀 가음 명녀 갈혀서

적벽강인지 복회ᄉᆞ 백셩인지 불이 쇠고어진
거랑왕이 화우로 밧긔 ᄯᅢ이 흰러ᄒᆞ니 바라보니 낭ᄌᆞ
ᄉᆞ이와 여러 ᄉᆞ람이 흑녕홍좌를 뫼셔 이 곳모친다 ᄒᆞ거ᄂᆞᆯ 하
와 쥐부인을 모셔 산덩다 우거을 광숙ᄒᆞ러 밧기와 ᄇᆡᆨ구경을
날제 뫼완이 보물 불 여영이 븜 비 제실ᄒᆞ는 승변이 일
장 꿈이라 흔 곳 우ᄭᅦ로 ᄀᆞ 우와의 발 부셩ᄒᆞ야 책인 우순 초량
ᄎᆞᆼ가 불친 지서여 우실이 어려ᄒᆞ여 ᄋᆞᆫ 완이 저소ᄒᆞᆫ 모ᄅᆡᆫ
레 완궁 인소경이 조ᄒᆞ다 흰니을 모르게 ᄋᆞᆺ서 가 ᄒᆡ보ᄋᆞᆫ이오
불ᄋᆞᆫ 가와 글 곤 ᄒᆞᆫ가 괴모쳐니 ᄃᆞᆼ구흔 쳑이 갓골 져여 괴고ᄋᆞᆯ
나 왕이 오른 쾌우을 보나 삼낭이는 복을 입은 가ᄂᆞᆫ 삼흔을 졈ᄋᆞᆫ
ᄒᆞᆫ가이 쳐서 나 왼달의 ᄒᆞᆫ동이 여우판ᄌᆞᆼ을 너ᄒᆞᆯ량 여부ᄒᆞᆨ이편
방와ᄂᆞᆫ ᄒᆡ와 방여궁에 ᄯᅢ갈ᄃᆞ 그인ᄒᆡᄂᆞᆫ 쳐ᄉᆞ셔여 ㅣ리ᄋᆞᆼ이 되
여샤 이ᄭᆡ구 방궁여ᄃᆡ 이영ᄉᆞ다 쳐낭베은 쳐ᄂᆞᆫ 국히ᄀᆞᆫ인
의 ᄉᆞᆫ앙치 안녀 되ᄆᆞᆯ다 낭ᄯᅢ이ᄉᆞ여자 ᄂᆞᆯ은 ᄃᆞᆯ이 일ᄉᆡᆼ의 ᄇᆡᆨ년

당음이 일정 츌몸이 ᄌᆞ여져 곳치ᄒᆞ며 농부ᄒᆞᆫ 소요

자여편쳐 되가서 빈화로ᄂᆞᆫ 로ᄒᆞ기 을뵌ᄯᅥ ᄒᆞ이 인ᄂᆞᆫ 고로

게소회ᄒᆞ며 츙복을 시겨 복을 ᄎᆡ이며 거울롤 ᄂᆡ여 보ᄂᆡ

ᄒᆞᆫ 김셩은 ᄒᆡ로 휘쳐 ᄂᆡ 몸이라 논복가 로화 당ᄒᆞ여 엳

잔을 놀다가 쳡실을 가려 암상의 ᄇᆡ되여 ᄒᆞᆫ제 바ᄅᆞ와 산

ᄯᅩ 아ᄎᆡ로 누슉의 ᄎᆡ거ᄒᆞ고 화재울 ᄎᆡ거 긴식은 가려ᄒᆞ더라

염낭ᄒᆞᆫ 놀 복인은 　　츙몽당 쳔슉양 셩남

문득 병명ᄒᆞᆫ 시비 궁본될 부인이 더ᄃᆡᆫ 고통로 시ᄂᆡ다

ᄯᅬ 부인이 ᄌᆡ경ᄒᆞ여 급히 ᄎᆡ방을 ᄃᆡ려 도ᄒᆞ 갈새ᄂᆡ

셩이 ᄉᆞ소될 부인은 다ᄯᅥ쳐 ᄲᆞᆯ으로 쳐울 부인의 영

히실사이여 희ᄒᆞᆫ허실거 ᄇᆡ가ᄒᆞᄂᆡ여 부인이 인ᄂᆞᆫ될

은 간을 ᄒᆞᆫᄂᆡ 중ᄆᆡ 슉쳑ᄒᆞᆫ 몸이 부ᄉᆞᄒᆞ여 ᄉᆡᆼᄃᆡ오

삭ᄒᆡ ᄂᆞᆯ 뭄ᄂᆞᆯ 노로ᄃᆞ 닝ᄃᆞᆼ이 ᄂᆞᆯᄂᆡ여지 ᄲᆞᆯᄒᆞ고

이여더나난쳥이두발 복인이두랑이슈치로다시
니어지알외온쳥은도아랏제슈사여부인을비낭이
초슈허시기갑히든치못허니여다녕낭현의미론걸과
마조나와난쳔의손을잡아누어루조를비여왈우리부
인이우병허시더니금일볍을더졀이와그리일쳥허
신셜룡으로송뇌을지쳥지못허여쥭헐뇌어지더니별로
흐리도난쳥왈와근소흔치앗든방초이라쇄쇼허리
흔여임실허여보인이뻐리어남으년은빈이산
난허든축항우춘을을룡난쳔을본된일낭혼날을
구허라난쳥이갈이지월난설허로처이병은내슈다
소랑허든볍이나괄간잡으로처허든혼의의두올을내
현셔기수인산수을져허혀오든부로다시히스러느
랑산쳥룡이다이을부로운듯칭허신룡이물을말

난듯 일리기 남군와 상하의 관절이여 득하매 퇴군의
비뤼퇴라 방을 더하기 비우을 온드니 셜차우여 왈이
히산온 별탈으로라나는 열두 변셩상의 즁 밧ᄃᆞᆺ 셩
산을 엿시니 ᄉᆡᆼ얼 우의 ᄯᅩ 인갓처 산은 ᄒᆞ여 변동 방ᄒᆞ
혹의 겁붓ᄒᆞ여 나라 조다 즐 나 방즁이라ᄉᆞᄒᆞ여 다 라 상일
혹퇴 군이 신암을 분이 부존 모공ᄒᆞ여 형숙한 줄 제
이려기 인의 거상이라. 거잔 분축도 낭시의 쳔이 기타 공
왈 츼졋 통의 와 ᄎᆞᆷ 늠 보는 걸ᄉᆞ퇴. ᄒᆞ여 영 발졍셩이
과즐다. 왕이 쳐안을 뵈과 ᄒᆞ여 장간조을 더니 왈 외
미남천 본을 열드 터 와 젼을 ᄒᆞ여 왈 나는 쳔상 쳘거
셜이 턴 산 체 거두려 터는 인간의 적강ᄒᆞ여 ᄭᅵ기 부외연
분이 잇가 로의 탁드체 라ᄒᆞ며. 변쳔의 일도 중한이 라 여
흉숙의 걸 거늘 늘 나 씨 쳥의 비ᄒᆞ외 서여 일 붐

이괘와 아즐러 흉모랑 시비곱보왈 낭패작아뭇
허시런이 출산성은해 싱이다 왕이 흉모랑왜 가보이난
생이와 주호해다 가지하왈 이변은 상공이 초비존을나
으식이아다 왕이우욕에 왈어지일 욘흉흔 교난쳔왈 쳥
이얼은 줄고은 날는도나 가보 앗서나 차아 곳치ㄷ은 언줄은
녀는외로운 괘 이얼을 거하 험일 흉흔돼지 안이되 잇가 연왕
이니하가 분어 변동이 ᄯᅩ한 회정친 해더퇴 왕이 묘는 순울령
가장퇴 쳥상 천괘형은 분리로온 뻡이라 몽쥐어시지래근
각흉키로 해재자 상일 혹뒤흔 이복인라 당복을다퇴길
왈보이 신이 원산 찬이와 쉬파대퇴어 은도화난 흉이우
불쳐 출학이 영군에야는 근험은 효졍이비 쳐난로
면대주 비해어 욘흉한군 결은 졀음을 졀흠해ㄷ 흉평
현쥐상은 연왕울 방불해이 남벽이인 셔줄보이 알ㄹ괘

화룡의혈로되 몬뎌소되ᄇᆞᆫ다 졍혈 졍국ᄒᆞᆯ남ᄌᆞ의
는도지 못ᄒᆞ엿시니 이아ᄒᆡ 반아울어 륙ᄒᆞ외로다 ᄒᆞ
중이 일오되 ᄒᆞᆯᄂᆞᆯ 쳔긔 셩운 새로 ᄂᆞ본 별이라 ᄒᆞ더니
신이 ᄃᆡᄒᆡ 보ᄒᆡ 쳥슉ᄒᆞ여 ᄐᆡ일로 잇실이로다 아ᄒᆡ의
일홈ᄒᆞ여 거셩이라 ᄒᆞᆯ다 ᄒᆞ니 부인앞흔 조아의 ᄆᆞᆯ로ᄒᆡ
승ᄒᆞ여 기로ᄒᆞ게 ᄒᆞᆯ노라 셜ᄂᆞᆫ이 뒤 왈 남이어 준이 ᄀᆡ상이
반아 복ᄒᆞ여 ᄉᆞᄂᆞᆫᄃᆡ 잇가 인셩의 엄연ᄒᆞᆫ 반 로ᄒᆞᆫ가 ᄒᆞᄂᆞ이다
면앙ᄒᆞᆫ 월 쳔이 ᄌᆞ지 못ᄒᆞ나 ᄂᆡ셩은 니보 ᄂᆡ 월보ᄃᆡ 면을
은의 위ᄒᆞ여 ᄃᆞ 뫼에 ᄒᆡ 호ᄀᆞᆯ 촌ᄂᆞᆫ 무주 이 각우기 ᄋᆞᆼ
ᄒᆞᆫ 인연ᄒᆞ얼을 보라 ᄒᆞᆼ 말 ᄉᆞᆼᄒᆞ시니 녀지ᄒᆞᆫ시ᄃᆡ 황
부인게 ᄅᆞ 왈 ᄒᆞᆼ셩 ᄇᆞᆫ부의ᄉᆡ 간이 왓나이다
왈 월졍 ᄒᆞᆫ낭 셩ᄉᆡᆼ 면왕 영피ᄒᆞᆫ 황부인 셩긔ᄂᆞᆫ
시ᄅᆞ 뫼 ᄒᆞᆼ복인이 볼부ᄎᆡ 간을 바라보니 ᄒᆞᆼ각

노복뷔 부인거 편셔ᄀᆞᄒᆞ이 보랑 흑디의 셴 불실다
올너어보기 엿더라 황부인이 쳐간을 보ᄂᆞᆫ 빗고 ᄒᆞ여ᄒᆞᄂᆞᆫ셔
이 잇거ᄂᆞᆯ 왕이 소왈 부인은 엇지 시글게 ᄒᆞᆫ 실ᄅᆡ올 혼
ᄃᆞᆫ 벽으로 ᄒᆞ여 ᄒᆞᄂᆞᆫ 초디ᄂᆞᆫ 편이고 통ᄉᆞᆯ 엘ᄂᆞᆫ 보ᄂᆞᆫ 이고 이ᄂᆞᆫ 비
실롱속이라 왕이 ᄯᅩ 왈 당셔ᄉᆞᆼ이 황후 초쇼의게
션ᄌᆞ이 보ᄂᆡ엿셔 여 실ᄂᆡ라 ᄒᆞ면 더 시 ᄆᆡᆺ셔 ᄌᆞ홀 지라 약ᄃᆞᆯ
아무모의 편지을 ᄂᆡ 뭇블 비 영ᄉᆞ 쟝 간보ᄉᆞ이라 ᄒᆞ니 너 부
인의 ᄉᆞᆫ의 가져 편지을 징이 아 ᄆᆞᆺ 너 부인이여 우보ᄉᆞ 드러 니 다
을 슈기며 ᄂᆞᆯ 왕이 편지을 낭둥을 흑여 왈 이 편지 조ᄒᆞ여
운 회ᄒᆞᆯ 말이 엄ᄉᆞᆫ 낭둥 운 보뫼 황부인은 울으 편지을
산ᄉᆡᆨ 강동어 왕이 난셩을 볼 ᄉᆞ왈 너ᄂᆞᆫ 편 부인이 ᄲᅧᆯ 여서
주ᄂᆡ엉ᄒᆞᆫ 둣실다 울 찻 피 너 무슨 ᄲᅧᆼ인ᄃᆞ 난 ᄡᅥᆼ이 흑여 왈
이ᄂᆞᆫ ᄇᆡᆫ 노의 이엇슨 ᄒᆞᆼ 쳬가 순 너 이라 황 부인이 여 묵고 ᄒᆞ여 흑
네 울 부인이 펌ᄒᆞᆫ ᄒᆞᆫ 왈 너ᄂᆞᆫ 무 상이 일 고 상 ᄉᆞᆫ 다 ᄆᆡᆺ 탈 이 여

엿날로 황부인의게 왈 노친에 형을 ᄉᆞ당ᄒᆞ온 후 원의
실다가 빗쵠 거울 보시ᄒᆞ던 의ᄃᆡ 벼ᄂᆞᆫ 일을 ᄉᆡᆼ각ᄒᆞ니
인졍이 잇실 셔안 보기시 이다 다ᄅᆞᆫ 일은 업ᄂᆞ이다 왕이
왕노 왈 니비록 평신이 엄ᄒᆞ나 미츰 분편지ᄂᆞᆫ 거역ᄒᆞ
나 부인의 뒤 저지ᄒᆞ고 상ᄉᆞ이다 만ᄉᆡᆼ이 부신 인젓시
나 옹뫼귀ᄌᆡ ᄒᆞᄂᆞᆫ 뒤져 잇시물 쾌낭은 업지 모ᄅᆞᄂᆞ니 보
ᄒᆞᄂᆞᆫ 일을 쳬ᄒᆞ여 ᄒᆞ여 되 ᄒᆡ 외ᄂᆞᆫ이 뎐을 ᄒᆡ 졀로 밧ᄂᆞᆫ 여 황부
인이 출산ᄉᆡᆼᄂᆞᆫ ᄃᆡ이 일ᄃᆡ 당ᄒᆞ여 ᄂᆞᆫ 뒤 용이 신아을 본니 ᄅᆞ
일이 변화ᄒᆞ여 상ᄒᆡ여 밀상 됨 홍쳬 거 화ᄂᆞᆫ 회 복ᄒᆞ고 상ᄒᆡ
타 ᄃᆡ 회 왈 근 이 의 화 길ᄒᆡ 몬 오가 쳔 ᄂᆞ지라 ᄒᆞ 올 이 ᄂᆞᆨ
신 볘 타 ᄒᆞ 여 명 울 섞 쳥 이 ᄅᆡ 즐 다 왕 에 옷 ᄃᆡ 보 연 을 보
이 옹 ᄒᆡ 여 신 여 의 옹 ᄇᆞᆯ ᄒᆡ 여 쳔 의 와 ᄂᆞᆫ 을 편 소 ᄂᆞᆫ 을 엿 ᄉᆞ
니 ᄅᆞᆫ 일 ᄉᆞ 복 은 쥭 ᄒᆡ 리 라 ᄒᆞ 여 ᄅᆞ 즁 ᄒᆞ 주 가 편 ᄅᆞᆫ

을당ᄒᆞ여왕이병재현의이롱씨복인이산후
명은엄ᄉᆞ나신게곤괴ᄒᆞ여수업거ᄂᆞᆯ왕월츈득방
월은사람ᄯᆞ다ᄉᆞ당ᄒᆞ여우려볼ᄂᆞᆫ베라일ᄉᆡᆼ일세
의가절이복다ᄒᆞ나엇지흔이령시수엇난롱복인이
라왈최종복생이젼슈을이ᄃᆞᆯ이엇인간가절이가
물모로나다왕이웃다담ᄉᆞ되라긴셤장현의이롱더
을복인ᄒᆞ여실너을거ᄒᆞ여월ᄒᆞᆼ의벼회ᄒᆞ여쳥ᄒᆞᆫ인
ᄎᆡᆨ은월쵹이복당ᄒᆞ며별ᄒᆞᆫ휘도눈향이울시거ᄒᆞ여
눈식당이라빙셜ᄃᆡ실ᄒᆞ여쵸슉평시ᄒᆞ이일은쳡진되
엽쳬우화이듯쳔ᄒᆞᆯ듯서조이ᄂᆡ모ᄒᆞ여갓가이ᄒᆞ여
가소월부인도홍쳐영괴이ᄒᆞ도다복인ᄒᆞ난연쇼할
ᄃᆞ인이을즐귀츌월셩ᄒᆞ여죽일심이라ᄒᆞ나죵시수
ᄂᆡ외날이라힝은보건ᄃᆡ옥우ᄂᆞᆫ부신ᄒᆞᆫᄃᆞ을ᄒᆞ하난결
ᄃᆞ준ᄒᆡ일월ᄒᆡᆼ졍ᄒᆞ강이소ᄒᆡ의ᄲᅢᆨ쳐ᄒᆞ여이난지ᄂᆞᆫ며거샹이업슬

결이우시되ᄂᆞᆫ현회가복중에나잇참비변대ᄂᆞᆫ데ᄒᆞᆯ
잇고이ᄒᆞ야이ᄂᆞᆫ존의졀디다곰아의일거쳔명을
며일졍불여엽ᄂᆞᆫ듯쳔이오란현두뎌유왼을만
일어우되ᄂᆞᆫ볼너엿미일ᄂᆞᆯ별월이ᄂᆞᆫ우의고측이야되
잇ᄂᆞᆫ쳥이비족ᄉᆞ동코의왕복인ᄒᆞᆫ형ᄋᆞᆫᄒᆞ나오히며
일두죽ᄂᆞᆫ잇시나다 이믈회한인ᄂᆞᆫ대인장ᄒᆞᆫ인이영
술마츌나야대왕이뒤ᄒᆞᆯ복인의욱시헤이죽구ᄒᆞᆫ
시인불손당치못헐지라 난형의져거와쇄ᄋᆞᆼ의ᄃᆞᆼ
누ᄆᆡ연ᄋᆞᆼ의져손을범ᄒᆞ야엿시오죠정을블뫼헐거
시엿여난지라독죽을가지ᄂᆞᆫ거ᄂᆞᆫ주여가될식을주병
을이엇더허볼뵉인이운나ᄂᆞᆫ서이ᄒᆞᆫ일ᄒᆞᆫ듯을듯ᄂᆡ
ᄂᆞᆫ죤은수로갈셔길이당ᄒᆞᆫ가을괴야네연낭을주ᄂᆞᆫ
너롱보당의갓다ᄒᆞ게ᄒᆞᆫ훙골당의강야연ᄋᆞᆼ

이젼은수의갓다온거슬왕이우으며왈뎌의우거
을거시ᄃᆞ물길이우회로뎌의울흉이며와ᄂᆞᆫ산낭의
쳐소의가우뎌을지버ᄉᆞ뫼의니ᄀᆞᆯ복인을다려ᄂᆞᆫ완월
평보ᄅᆞᆯ가ᄒᆡ혀이복인을완월평운인리잇시이가기비
권ᄒᆞᆯ가ᄒᆡ나이다왕왈야셤ᄒᆡᄃᆞ강두의인젹이업스
니ᄆᆡ어시비편ᄒᆡ여호이의복인나ᄒᆞᆨ을잇ᄉᆞ되완월
수의오ᄃᆞ니소연이ᄎᆡᆨ오ᄒᆡᆫ디심니평강의월랑은ᄒᆞ니
부뎌시의왕이난간을지여이ᄅᆞᆯ수물보이강쳘이오ᄅᆞᆫ
을ᄃᆞ쳥혼이쇠뒤ᄃᆡ이난쳥아흉흉가쳘을당ᄒᆞ여
병왕이ᄌᆞ온수물셕을소랑ᄒᆞ여느뎌ᄌᆞᆫ료을쥴
말ᄃᆞ비반을갓조ᄃᆞ나당을평ᄒᆡ여ᄌᆞ온수곰슈
평의모녀거믄ᄃᆞ을ᄒᆡ흉을ᄇᆡ명월시을뫼오ᄃᆞ
샹의ᄎᆞᆺ기을기다리며ᄉᆞ시여연나디파난쳔여여ᄆᆞᆫ
ᄃᆞ을빌뎌ᄃᆞ왈샹곤은흉ᄒᆞ여답연ᄒᆞ여시나기여

되로이어온샤이 ᄎᆞ동국의보내여보ᄂᆡ라ᄒᆞ고ᄉᆡ여ᄂᆞᆯ
나가ᄃᆞᆯ지ᄯᅢᄃᆞ로다ᄒᆞ나오뒤뒤오지아니ᄒᆞ니무상연ᄃᆞᆺ
난가ᄒᆡ노라쳔낭왈ᄂᆞᆫ심이업스면실상이비ᄅᆞᆯ안ᄒᆞᆫ시니라
되가뵈오니울홀마ᄒᆞ여평이ᄂᆞᆫ즁ᄒᆞ더니어의몽쳔의ᄒᆞ
욱제쳥이만궁의오뫈ᄒᆞᆫ가즁나ᄂᆞᆫ쳥이우으며왈오왕으
여서ᄀᆞ무질병이되실물의가ᄎᆞ뒤나ᄂᆞᆫ숫츠ᄅᆞᆯ알니라ᄒᆞ더
니시비옷ᄉᆞᄃᆞ려오며울부인다왕왈ᄒᆞ며자ᄇᆞᄂᆞᆫ구ᄒᆞᆯ가ᄉᆞ
려ᄒᆞ사ᄅᆞᆷ모ᄅᆞᆫ당신이ᄆᆞᆯ을ᄃᆞᄅᆞ며상궁이우제을가지
ᄃᆞ가시다ᄒᆞ더니다낭등이이ᄀᆞᆺᄃᆞ연ᄋᆞᆫ왈이ᄀᆞᆫ아ᄃᆞᆫ을ᄂᆞᆫ나
ᄃᆞ쥐ᄒᆞ시니ᄎᆞ다ᄒᆞ며ᄃᆞ쇼뒤을ᄂᆞᆯ것데왈왈뎡의ᄊᆞ나며
갓던시ᄋᆡ말이영남현시여말ᄒᆞ되상궁다려부인이제하
의ᄊᆞᆯ달을마ᄐᆞᆫ쥐조ᄃᆡ인장ᄒᆞᆫ민을[illegible]차ᄂᆞᆫ마진다ᄒᆞᆯ
ᄊᆡ나어대가션피보ᄃᆞ노라ᄒᆞ더니마난ᄉᆡᆼ이ᄀᆞᆺᄃᆞ왈상공이
숙이샹이우되도잡간ᄂᆞᆫ스ᄅᆞᆯᄒᆞ여ᄇᆞ시ᄒᆞ여물엿ᄃᆞ상

군흥치을로으되라소책현하의일념소현이잇시여
춘삼낭으로두어가지흥뉴와미반을시러완월정으로
향허저순삼낭은조비을허여갈서난쳔은옥저을불ㄷ
셜낭은거봉ㄷ을ㅎㄷ연낭은명월시을일ㄷ여술누를
여게뫼가에잇셔니낭이ㅁ을불더여강상의쳔인월이나
배일엽편이기ㅁ오ㄱ을부인다갓치불어보는횡
강의슉자는불흥이타편월이강상의조ㅁ허기ㄴ
관백수는나되니며현ㄷ름의우저쳔은즘혀하쳔ㄱ저
ㄷ별월시을화당을배흥뉴의되난ㄱ되왕이잉ㄱ이
당방을다가보인다되왈되리힝색이쳐샹강상의탁
위을허든나허쳔이인ㄴ병ㅎ기소허든소동ㄱ강션을여
보는도다흥치잇게노는도다보인ㅊ자ㄴ초왕이허ㅊ션초
동ㄱ역ㄴ파낙조쳔에동희왕을놀ㄱㄷ동산신녀을
망왕을축이니가글낭이ㄷ왕이ㅈ소을배브더여영의ㅂ

강듀의다아비태평샹의요로나왕이소될줄아의원셕
온쳬낭을위하여바라으니로다부인라젹막하안뎌
너뎨낭이신존이존지너감손하여라난셩이귀될쳥듕의
샹공의흉대하시믈니여금야원셕을뉘하여화지신하
츌연더니형변현달은누흑현인불을보니혜더손불으
지이시어강하느리봇하ᄃᆞᆫ강등소셜을어더하ᄃᆞᆫ유졍션
이냐로ᄃᆞᆫ뎌하엿솜ᄃᆞ니의뫼의복ᄃᆞᆫ시어황증혀믈이니지
못하니야부인하소왈상공이근간은긴뢰ᄃᆞᆫ심이만으스뎨
낭의불숏지다을봇고뎌흉뎌녕ᄂᆞᆫ손라을며러ᄃᆞᆫ니초안
아올복ᄃᆞ로ᄉᆞᆫ이보닌뻔하도여일졔쳐소하ᄃᆞᆫ난셩이뷔ᄃᆞ궁의
텬반을마려오라하여월하의미미하여량쥬로취의러흥
이걸회라부인이난현야뎌왈니ᄃᆞ로나낭의유뎨ᄌᆞ온이
뫼ᄃᆞᆯ나낭온뎐이을ᄉᆔ초을나문흉을마뎌ᄃᆞ로ᄃᆞ혀ᄃᆞᆯ노라
낭낭이온변하ᄃᆞᆫ셜낭이문뎌온슐을말뫼여삼ᄃᆞ

현죽ᄒᆞᆫ 이ᄂᆞᆫ 뎡ᄒᆞ ᄒᆞᆫᄂᆞᆫ 현구름은 강두의 어릐여 곱
현몰ᄅᆞᆯ 젼ᄒᆞ다 셩밧봉이 강심을 ᄯᅱ져 보다 ᄒᆞᆫ구려 여러
어난쳥이 다시ᄅᆞᆯ 울을 알외기 ᄶᅢᆼ이 쳥신ᄒᆞᆫ 아ᄒᆞ여
ᄒᆞᆫ여 국ᄃᆞᆫ 인ᄃᆡ 쳠ᄒᆞ여 ᄃᆞᆯ너 쳥ᄒᆞᆫ 운셰 ᄒᆡᆼᄃᆞᆯ ᄃᆞ지 안너
키비 회권ᄒᆞᆫ 히여 흉촉ᄒᆞᆫ 긔 ᄌᆞᆼ낭이 다시 ᄌᆞᆼᄀᆞᆼ 눈물을
항ᄒᆞ여 일황일 ᄉᆞ랑ᄒᆞᆫ 상셩은 ᄂᆞᆫ 소의 소ᄉᆞᆫ 몰ᄂᆞᆫ ᄒᆞᆫᄒᆞ
셩은 ᄂᆞᆫ ᄒᆞ여 산형이 상응ᄒᆞ여 너무 거운 ᄃᆡ로ᄃᆞᆫ 변ᄒᆞᆫ 홍쳑
조ᄒᆞᆫ ᄃᆞᆫ 슐ᄅᆞᆯ 홍뎌 ᄃᆞ변 ᄎᆞ면 변셔ᄒᆞᆯ ᄯᆡ마다 홍인이 모다 계
회ᄅᆞᆯ 엿ᄌᆞ와 다 ᄇᆞᆯ아 심의 ᄅᆞᆼᄂᆞᆫ 팔이 셔 이응와 기울 미가 ᄂᆞᆫ 쳑ᄒᆞ
울 ᄒᆞᆫ져 너파 쳔시의 ᄭᅦ 화ᄒᆡᆼ애 연왕을 보니 ᄉᆞᄂᆞᆫ 친왕을
뎌ᄒᆞᆫ 신ᄂᆞᆫ 취셩 홍소식을 무로시며 ᄂᆞᆫ 불ᄂᆞᆫ 숙시 ᄃᆡ명
음여 홀ᄂᆞᆫ ᄒᆞ여 하례 흑ᄐᆡᄒᆞ여 ᄌᆞᆫ 홍이 ᄃᆞ려ᄋᆞ 쳔거 ᄒᆞᆫ앙을
너가 울이 ᄃᆞ회오니 길왕이 일장 올을 을 너 옷사 ᄂᆞᆫ 빈물
쳥ᄒᆞᆫ ᄂᆞᆫ 강산의 유완 ᄏᆞ채 ᄒᆞᆼ나 회 ᄇᆡᄂᆞᆫ 쳬 ᄒᆞᆯ파

진왕슌리심ᄒ슌 연왕밍시현평ᄒ고
시의진왕이표를올녀순셔를ᄂ상이진왕을인견ᄒ셔
그무ᄉ리ᄃ모회쉬년의ᄎ의울열ᄂ보ᄂ그제이어서
편을강퇴련ᄒ여경체ᄒ올ᄂ고ᄒ쳬엿려여경의
ᄉ지여ᄂ종내어ᄂ진왕연속는리ᄃ두려여와강산의은퇴ᄒ
되올소청ᄒ보ᄒ못ᄒ여짐의ᄒ왕의ᄌ는숙석이엇고
뒤비리잇셔심축삼사여ᄌ책의잇샹이날ᄒ야소환ᄒ나
평지아니엿지ᄇ를ᄂ곳ᄒ여가이오진왕이ᄉ실신이분위ᄒ
병ᄒ와ᄋ퇴현심ᄒ울드를가망신을우랑그처티ᄋ면
방위연왕은지거지알어온취쳐돌은디ᄋ은절ᄂ숭구ᄒ파업
의연왕라샹아이잇순와쳐을ᄃ속원을믹ᄂ매울ᄇ디벗도ᄒ
ᄃ평디로볼ᄃ뒤ᄒ여마샹이혼년이갈아순뒤편의ᄉᄂ울
ᄉ못견뒤짐의ᄂ음도숙숙편신왜우연현ᄒ이만동ᄒ여
임의죄못견은모ᄇ외외놀기을ᄋ을노폴기피ᄒ

나엿지망 승재 둘이 더몽리 안여 되오륙월 왕반을
허고 나서 저옥을 받아 재하 소청하고 황국리 며 평양들이 다려
현지파 반다시 별반 할나여 덧실리나 가며 보고 일고 입하
리더하여 도라오는 날이 아기 삼아 김이 듯게 허리 왕이 추
병이 퇴하여 복통의 도며와 ▲삼리세다 되월네 본이다 른
벌리엉고 낭등을 득몬시옥 둥숙와 강산몽정을 맛지
을 지국모 된 심회를 소황고 허이자나 이제 회성중의
가얀 왕을 찰고리 용정히 울 보이니 울회울 롤고 저허나
니얀 왕은 지리 봉우조평야 형제 굳여시어 얏 싱리 안이라
몬디 봉은 우며 형승지어 낭등을 라되고 가고지러 노라 혈
지비더 왕을 청하 둥이 난청등으로 속야 이잇서 한번 가기
을 일너시니 면디초 허되 허여어다 운청소왈 상궁에 둔
누디 심으로 벗을 찻고저 허실진데 미당이 백은 담허심
방[illegible]로 시되니 엇지 형장을 과히 되허시나니 가망왈다

싸흔ᄒᆞ주을당ᄒᆞᆯ어려여일필쳥ᄂᆡ와산견아북으로말
경바로쵹텽동으로가려ᄒᆞ더니이다공희ᄒᆞᆫ호왈저변일
은홍골월리방이라소동쥐의쳑벽ᄒᆞᆼ의동수를엇줌
호리을다ᄒᆞᄂᆞᆫ노던방을의방을여성이동가의일엇소
쳘을번네ᄒᆞᄂᆞᆫ일을리옥수와숙독을시는왈수을보
대쵹졀동으로가서병졸인도반마시왈명을더홍제
이여는일에쳑벽강노픔을의방쳐이더보진왕여
삼국비키희칭찬ᄒᆞ더ᄂᆞᆫ이일쉬나일쳑셜을다ᄂᆞᆫ쥐
동으로흰ᄒᆞ더과시의연왕이되손이후로미일퇴ᄂᆞᆼ을
다더ᄂᆞᆫ산숙경리을돈졔한가현산홍져상으로쳥북
을주쥐ᄒᆞ며형은을노퇴ᄒᆞ여한ᄂᆞᆫ듯ᄒᆞ여ᄆᆡ죽필
왈을리방을당들며쥐ᄂᆞᆼ다되왈니비록소자협의중
국정을당치못ᄒᆞ야동ᄒᆡ쳥동수쎡이쳑벽강

울양독죄아닐거다완월졍이엽희베여여측
강병월을무롱이보게저이니리죄낭졍이튼변운낭간
네반을자씨ᄂᆞᆫ줄ᄂᆞᆫ낭낭을다피ᄂᆞᆫ완월졍의이로리알
철을등뎌ᄒᆞ더셜상의을수비을뵈이ᄂᆞᆫ동충어무측
십명을롯터각ᄂᆞᆫ어셜을가쳐그볼을치며나시을ᄂᆞᆫ리
외어옥을나그파ᄒᆞ여이쳐강ᄒᆞ여무타ᄒᆞ여일는변
월이동병의도둔벅수는황망ᄒᆞᆫ숙령운쳥ᄒᆞ여
파쳡ᄂᆞᆫ이손어홍운강충을더ᄒᆞᆫ벽수는순상의나파
나며일진황풍이부는곳여변니쳐만ᄒᆞ셤이올ᄂᆞᆫ이둘
내거늘왕이귀을기우레ᄂᆞᆫ둥ᄒᆞ니낭다려왈ᄒᆞ소리싱불
오랑ᄒᆞ어올만의숑통치셔셔상뎐강상에피셩이
안닌마즐그파낭셩이디왈강ᄒᆞ여ᄂᆞᆫ올ᄒᆞ디ᄂᆞᆫ록흥ᄒᆞ금
흥곰야왈쳐을ᄂᆞᆫ당ᄒᆞᄂᆞᆫ뎌우미쌍이어리잇ᄂᆞᆫ반다시
강상의셜우ᄒᆞ이잇쳐입을피ᄂᆞᆫ록쳔월의숙흥의

이다의 동소을 회롱허빈가 즐나이다 셜낭이 이ᄌᆞ오말ᄂᆞᆫ바
허라ᄒᆞᆫ 현이여 칭사이 아허ᄂᆞ 쉬양ᄒᆞᆫ니 지어을 사
보허이오ᄂᆞᆫ 늘에 창신허ᄂᆞᆫ의 선당을 너 벽상 편ᄉᆞ당
의복ᄂᆞᆫ 비이 되이 여지산 읍혈아의 뒤이ᄃᆞᆫ 종의 집을 ᄎᆞ허
아녀ᄂᆞᆫ 옥의 눈을 주헌ᄒᆞ 치 엿시니 더안조 울느가 좌ᄃᆞᆫ 리로
허녀의 심허여 일념셜이 강상으로 ᄂᆡ게 되오여 일주 노가
울한가 이브여 기가의 ᄆᆞᆯ

일념셜의 즛ᄂᆞᆯ 말아 쉽니 청강을 니러어 ᄒᆡ셩ᄒᆞ
차ᄂᆞᆫ 가ᄂᆞ니 본이여 거ᄂᆞ다 강상의 ᄃᆞ기 각ᄂᆞᆫ에 ᄂᆞ울앙
허ᄂᆞᆫ의 정의 징을 ᄂᆞ쳐 ᄒᆡ허오 더라 ᄒᆞ여ᄌᆞ

연왕이 그가 울ᄃᆞᆺᄃᆞ 크게 반제 쇄냥여 되소 왈이 ᄃᆡ이 진왕
이오ᄂᆞᆫ 도여 허니 홍셜ᄂᆞᆫ 냥이 노가 울 화당허니 진왕의 ᄒᆞ
병이 석일 상념월을 허여 ᄃᆞ던 소리을 불오리오이의 심
지비 ᄎᆞ셜 ᄃᆞ여 나 ᄉᆞ여 소리 허여 왈 양 ᄒᆡᆼ이 ᄒᆞᆼ앙

황상의ᄎᆔ몽을ᄭᆡ여강상풍월의쳥복을누
리니그ᄯᆡ이엇더ᄒᆞ뇨왕이쳘득의나셔ᄆᆡ죽을화영의
비슉ᄒᆞ물ᄂᆡ비록아랏시나금일흰셕은실노의되ᄀᆞᆯ다
터ᄇᆡ쳐조ᄎᆡ소ᄒᆞᄂᆡ쳔조비을ᄎᆡ갓가이ᄃᆡ이ᄂᆞᆫ손을잡ᄂᆞᆫ쳔
두의안흔삼ᄀᆡ비ᄌᆡ낭이쳐로반기불이거지못평셩ᄒᆞ여
옷ᄎᆔ지아니ᄒᆞ더니모다바라장ᄃᆡ소ᄒᆞ거ᄂᆞᆯ낭왕이웃ᄂᆞᆫ국
쳘을부르ᄃᆡ쳘지키왈홍난셩이상공의금아흰셕
을의심ᄒᆞ여반다시명츈이ᄌᆡ지이ᄂᆞᆫ광부의쳘시ᄅᆞᆯ비
안이라ᄒᆞᄃᆞ누가이일을즁네ᄒᆞ냐ᄒᆞ기쳔이우죽낭ᄌᆞ의
지휘ᄒᆞ신비라ᄒᆞᄂᆞᆫ웃ᄌᆞᆺ나이다낭왕이ᄯᅩ소ᄒᆞ여ᄀᆞᄅᆞᄃᆡ
울쳘쳔ᄒᆞ여홍슉의ᄒᆡ이ᄂᆞᆫ홍셜낭은유ᄒᆞᆫ을불
ᄇᆡ여ᄃᆡ키비ᄂᆞᆫ동소ᄅᆞᆯ화당ᄒᆞᄂᆞᆫ반ᄌᆡ예ᄂᆞᆫ병월시을노ᄒᆡ
풀여숙ᄎᆡ을ᄯᅡ라눌ᄂᆡ비반을나와ᄒᆡ로젼ᄒᆡ여쭁금

이상ᄐᆡᄒᆡ평동은쇠퇴ᄒᆞ여진왕이ᄎᆔ리ᄒᆞ니단줄연션
평을열ᄂᆞᆫ강산을ᄌᆞ우ᄂᆞᆫ변의무숙ᄒᆞᆫ여환운강상을
더ᄒᆞᆫᄂᆞᆫ난간ᄒᆞᆫ평졍ᄂᆞᆫ곳ᄂᆞᆫ피포ᄒᆞ여벽운이ᄌᆞᆷᄂᆞᆫᄎᆡᄂᆞᆫ
초가줄비ᄒᆞ여쳔ᄎᆞᆫ녹죽이총수밧거산봉을덥ᄒᆞ
시ᄂᆞ복으로ᄂᆞ린ᄃᆞ리봉은일쳔부용이명게울ᄃᆞᆯ너스니로
압흐로ᄒᆞ회 셥ᄒᆞ동이일ᄂᆞᆫ죽안평을쵤쳐 ᄃᆞᆫ쳔북지을
일월빗거울진왕이연왕라여일ᄉᆞᆼᄒᆞᆫ이ᄂᆞᆯ장이여상의
곤뱡홍엽이일세의빗나ᄂᆞᆫ그려ᄒᆞᆨ을인연ᄒᆞ여다ᄎᆔᄒᆞ여
바퇴퍼모ᄒᆞ여미나이가ᄉᆞᆫ병ᄌᆞ숭ᄌᆞ을너려산수지나ᄒᆞ편
원ᄌᆡ에을누ᄒᆞ되평복을안ᄒᆞᆼ되ᄂᆞᆫ일ᄎᆔ이여ᄌᆞ하ᄒᆞ올니
죽시여나화피여흡ᄒᆞᆫ되여ᄃᆡ도이의청거울ᄃᆡ평ᄒᆡ너올
황상이평의경을젼ᄌᆞ이반다시별반ᄒᆞᆫ나이엿실이
ᄌᆞ을ᄉᆞᆫ되산지미울일ᄂᆞᆫ일모ᄂᆞᆫ와미ᄅᆞᆯᄒᆞ라실쓸복

울발ᄒᆞᆫ왓더니 셰상의현아로시기ᄯᅢᄂᆞᆫ발고셔ᄒᆞ다
허여오ᄃᆡ여 붑두강두의일혀ᄉᆞᆺ다이며 축삼일이라
ᄒᆡ남왕거ᄇᆡ옹이ᄂᆞᆫ황병의예황병을밧ᄂᆞᆫ와병축
어ᄅᆞᆯ을ᄇᆞ릐연왕거ᄃᆞ리나진주ᄂᆞᆫ히축된울가정진
왕녀본계여연왕이부한ᄋᆞᆫ벽후한인더활을리간즁
니일을축졀구을죄칠고쓰셧시니시의알
십니ᄂᆞᆫ강남염천　　십니ᄂᆞᆫ강두념ᄋᆞᆫ계비며
ᄒᆞᆫ축소ᄒᆡ옥평천　　소쳐허여ᄒᆞᆫ축와옥평신회ᄒᆞ도다
평누옥옥즁ᄒᆞ월　　평ᄂᆞ옥으로날반ᄃᆞᆯ의
평염한다도출천　　앙게다도출천의찬거션은골상
가ᄒᆡᆫ출
연왕이샹축ᄅᆞᆯ반ᄂᆞᆫ와져샹음연ᄒᆞ여감ᄉᆡ나여물ᄒᆞᆫ고로
못ᄒᆞ니안ᄌᆡ여법축을밧드러롭ᄒᆞ며셩지을혈ᄒᆞ여왕ᄅᆞ뎡
통의저거괴옥상봉을ᄒᆡ며안ᄂᆞᆫ병훼의ᄃᆡ을여공히심을ᄂᆞᆫ

셩각ᄒᆞᆯ진ᄃᆡ 나속 비록 출정ᄒᆞᆫ 의흉을 도모ᄒᆞᄂᆡ 일명을
북향ᄒᆞ여 군인을 편ᄒᆡᄒᆞ야 ᄒᆡ시ᄆᆡ 이ᄯᆡ 양왕이 ᄯᅥ 북향
소비ᄒᆞᄂᆞᆫ 강취 총힝ᄒᆞ여 북쳔을 쳥만ᄒᆞ여 낭누이 북은
다가진왕이 범속을 가되오ᄃᆡ ᄒᆡ여 일은 쳥속의 도신비
욕되비록 ᄒᆡ여시나 소양의 못ᄒᆡ구되 이의 속비시 바산
ᄒᆞᄂᆞᆫ 죡의 보ᄂᆡᆫ 묵호을 가져 권ᄒᆡ여 왈 ᄂᆞᆫ화 ᄀᆞᆺ이 비록 ᄀᆞᆫ
쳡의 ᄌᆞᆼ속을 당치 못ᄒᆞ나 군속의 ᄒᆞ월ᄒᆞᆫ 속ᄒᆞᄂᆞᆫ 왕
부인의 소양치 아녀 되나 이 조화 진의 북이라 힝은 ᄌᆞᆼᄅᆞᆼ의
감흔 술을 이긔지 불니 저속을 기여 손을 ᄒᆡ정지 아니ᄂᆞᆫ
눈왕이 오ᄂᆞᆫ 텅이 시비을 븍ᄂᆡ 베반을 ᄃᆡ죡ᄒᆞᄂᆞᆫ ᄒᆡᄒᆞ여
밀셤셜이 ᄂᆡ ᄯᆡ오여 십여 ᄇᆡᆼ만 ᄇᆡ시저 베반을 도퇴로
ᄃᆞ리ᄂᆞᆫ 허영 낭ᄒᆞᆫ 여러 편을 ᄒᆡᆼ년 부인 결속 쳥ᄒᆞᆫ 을
나와 오ᄂᆞᆫ 든 몬누 충몰당 ᄃᆞᆫ 홍 가 삼낭 각 ᄀᆞ은 칙

현물을가져나온녹룡의가족현음식이부비
진속형찬이이어가는거서연순진왕매삼지비을보
아일을내어가공주의속도록을보장하여다니이제보내
관어퇴는눈위속로다철커비소이되얄훤를로낭부인
혜낭의보내신음식을주시보오니배를만풍이잇실줄을
알앗나이다낭왕이몸을이러혜낭의잇는배을보니배
의가득현거시일홈이잇는별식일쌔이여한배의속절
인이밤을지은선천을회킈판현청연은간흥이업븐
기는인옥책은얼화되여거발이비취여강호물쉬
이오팔육현꽃이지라난왕다륙룡픽이어청잔루
너쌀은혜낭의동낙은혜낭의노름이라흘더라날은이거
의셔기의이르게낭성이낭협의취거봉능희ㄷ재을준출
신의롬에발얼흘여혜낭다며을옥러는본니흥수
장의드딘인불이라금아월색을몸에이모내되또각ㄷ일을

쥭식소릐터여울뫽한심헤올쓰쟝취ᄒᆞ엿더ᄒᆞ노빈다
낭기비최흥을ᄡᅥ여운나ᄒᆞ니난셩왈놀ᄂᆞ쳐ᄒᆞ나니
뫼샹궁다쥭즁졔엳이만ᄌᆞ의수치ᄒᆞ여비울ᄂᆞ쳐별
니ᄯᅥ우뢰ᄒᆞ쥴ᄂᆞ손안취ᄒᆞ벽울펴어강듕의ᄒᆡ우ᄂᆞ난
쳥이록ᄒᆞᆫ울ᄇᆡ여왈ᄒᆞᆫ셕의가수울일우지ᄆᆞᆺᄒᆞᆫ눈
눈다빈ᄒᆞᆫ별ᄒᆡ리ᄒᆞ쥴나ᄒᆞᆯ지비뢰ᄂᆞᆫ난둥운이왕ᄒᆞᆫ
슉ᄒᆞ셩광ᄒᆡ여일을열게ᄒᆞᆷ슉ᄒᆞᆫ쟝ᄒᆞ오ᄂᆞᆷ슉ᄒᆞᆯ이쇽
고롭지아니ᄒᆞ나황망ᄒᆞᆫᄒᆞᆫ눈가의ᄒᆞᆫ파발ᄒᆞ니ᄂᆞ람잘ᄒᆞᆯ
여아니강ᄒᆞᆺ어시되별ᄒᆞ울ᄂᆡ여으되ᄂᆞᆯ난셩이로왈ᄒᆞ여ᄎᆞ셕
운궁ᄒᆞᆫ왕ᄒᆞᆯ의ᄒᆞᆷ수ᄒᆞᆫ이아니난울ᄒᆞᄂᆞᆫ소ᄒᆡ와ᄂᆞ이광
눈수ᄒᆞᄒᆞ쟈싱우옴올ᄒᆞ오ᄆᆡ대욕모ᄒᆡ지아니ᄒᆞᆫ얼ᄂᆞ
당ᄒᆞᆫ혹별ᄒᆞ울취ᄒᆞ도록ᄆᆡ이ᄒᆞ리ᄒᆞ이ᄒᆡ지ᄒᆞ왕이ᄒᆞᆯ왈
졔낭이우ᄃᆞᆼ이비올음ᄒᆡ여무삼별반ᄒᆞᆫ남이잇

시녀파ᄅᆞᆯ ᄃᆞ가시어 ᄂᆞᆫ을ᄶᅦ어 ᄶᅦ녕의 셜황가ᄉᆞ가 마이
ᄃᆞ보니 셜황을 ᄃᆞᆫ치ᄂᆞ어 ᄭᅳᆯ지어 ᄯᅢ 담ᄉᆞ와 아ᄆᆡ다 난쳥이
일ᄉᆡᆨ을 부ᄂᆞ어 기기의 ᄋᆞᆯ
장쳔이 ᄶᅧᆨ오헌대 남비ᄶᅦᄂᆞᆫ ᄶᅦ오ᄶᅡᆨ이 외ᄋᆞᆯ랑을 ᄂᆞᆯ낫
나난유소쳥을 ᄃᆞ랏ᄂᆞᆫ나 ᄒᆞᆨᄒᆞᆯ 월거 비낭부ᄒᆞᆼ보편오
겸사ᄂᆞᆫ셰 ᄃᆞᆫ면온을 차ᄌᆞᆯ 실ᄉᆞᆺ쳥어 어여다 ᄒᆞᆫ손아 ᄒᆞᆫ손의
쳐ᄋᆞᆯ 주어어다 ᄒᆞᄂᆞ어 일면 셜 ᄲᆡᆨᄂᆞ어 ᄒᆡᆼ어 ᄃᆞᆼ령ᄒᆞ고 ᄒᆞᄅᆞᆯ
가ᄅᆞᆫ쇄ᄅᆞᆯ ᄒᆡ 흐ᄅᆞ을 쐐어 가ᄒᆞᆨ을 ᄒᆞᆫ번 ᄎᆞᆯ니거 쳥주
이강리 ᄶᅵᆯ ᄃᆞ ᄲᅦ어 일ᄅᆞᆫ 자을 편ᄒᆞᆫ ᄐᆡ ᄂᆞᆫ ᄃᆡ 파 반 되 에 ᄉᆞ일
주을 부ᄂᆞ 기기의 ᄋᆞᆯ
ᄃᆞ외ᄒᆞᆫ 편 강ᄒᆞᆫ 곳의 ᄌᆞ되 ᄒᆞᆯ ᄉᆞ 쳥가 몰무ᄅᆞ 소리상 ᄂᆞᆯ
ᄃᆞ ᄒᆞᆨ ᄒᆡ어 ᄀᆞ ᄃᆞ 쳐 ᄒᆡᆼᄅᆞᆫ 나라 ᄀᆞᆫ다 아 ᄒᆡ 아 ᄲᅧᆼ ᄒᆞᆼ 의남 은ᄲᆡ
부어 파 강쳔의 ᄌᆞᆯ니어 ᄋᆞᆯ져 ᄒᆡ 노파
난쳥이 ᄃᆞᆺᄅᆞ 친ᄒᆞᆫ ᄋᆞᆯ지 비의 고 ᄒᆞᆨ면 ᄒᆞᆫ화 ᄃᆞᆫ ᄅᆞ쳥 신ᄃᆞᆫ어 ᄒᆞᆼ

뉴츅단을잇ᄌᆞ이엿도다 셜낭이ᄯᅩ일쥭을보려왈

벽쳔산나는주름ᄒᆞᆫᄃᆡ본ᄇᆡ가되여즁강츅ᄒᆞᆫ듯ᄒᆞ는불

의일염셜ᄒᆞ여보고월손향아엇슐삼아ᄒᆡᆼ홍의반

홰ᄒᆞ여아ᄅᆞ인간평복은나흔ᄀᆞᆺ들ᄯᅩ다

기즁이봉용ᄒᆞᆫ아ᄒᆞ여일연현쥭되간ᄒᆡᆼ의온황ᄒᆞ이일

쾌ᄒᆞᆫ튼ᄃᆞ반회낭치이셜양와솔을잠ᄃᆞ파얄낭젼일

쥭쳥수의독다보ᄒᆞᆯ불ᄃᆞᆺᄒᆞ여이제곤복건지팔ᄯᅢ인ᄒᆞ여

골다ᄒᆞ여ᄌᆞ파ᄒᆞᆯ치이일주을화당ᄒᆞᆫ에기강의왈

일은진형홍의ᄃᆞᆺ튤말ᄃᆞ싱녀쳔강기되옥강산ᄃᆞ가

되ᄒᆡᄃᆞ홍변도리지셤다되말이옥정번넘네게쳔ᄒᆞᆯ

여자인강의쇽셩비평누화독화ᄒᆞᆫ향다고평다ᄒᆞᆫ라

리기베ᄃᆞ뤼을ᄲᆞᆺ치이쳘ᄃᆞ기비연쇽인다ᄒᆞ월일졍일

화ᄂᆞᆫ자변현일이라슉연은쥭인ᄒᆞ야수리기ᄃᆞ이

연소ᄒᆞ야 몬져 일쥬을 불너 연앙이ᄂᆞᆫ 앙치 아니고
일변이 일쥬을 일월 외 너거 가외발
강수 ᄌᆞ손을 빗ᄂᆞᆫ 병월노 흑을 삼아 십이년 ᄉᆞᆫ산을 노고
불ᄒᆞ 누지키 ᄉᆞ이다 형상아 거ᄂᆞᆫ 달 내 흑어 자 남은 술독
ᄂᆞᆫ 번 념 갈가 죽리노라 반리냥키 각쳘 쳔환왈 연쇽
인ᄂᆞᆫ 종숙가 중의 우의 회이ᄒᆞ여 엇실거시여 이갓치 형상
당ᄒᆞᆫ 나이ᄂᆞᆫ 쳔ᄌᆞ조ᄒᆞ야 ᄃᆞ라 ᄌᆞᆯ여라 철치미 화ᄒᆞᆫ 졸이기가외
백아 ᄀᆞᆷ영희씨ᄂᆞᆫ 녹숙 형산좌ᄒᆞ거ᄂᆞ 병쳘노번 출삼아
형통의 ᄂᆞᆷᄒᆞ여 인ᄀᆞᆫ 진누이 ᄒᆞᆺ시여 그ᄒᆡ 설ᄂᆞᆫ계 여서반
탕현ᄌᆞᆫ 최초에 왓노라
난셩이 술을 진ᄒᆞ며 텽찬왈 리미외 일곡 형가ᄂᆞᆫ 죽히ᄂᆞᆫ
일여 쥭지ᄉᆞ의 울을지라 실셩ᄒᆞᆫ 쳥수가 죽의 당ᄒᆞᆯ뢰ᄒᆞ면
미외ᄂᆞᆫ 아ᄒᆞ 일을 ᄂᆞᆫ신은 보이 양남에 복자 일쥭으로 ᄒᆡᄒᆞᆫ양
ᄌᆞᆫ외 옥ᄅᆞᆷ을 ᄌᆞ으치이다 ᄒᆞᆯᄂᆞᆫ 빈ᄒᆞᆫ을 ᄒᆞ며 노치ᄒᆞᆯ니왈

베쟈어쟈~~ 그쟈ᄂᆞᆫ 날이안ᄂᆞᆫ 강쳘의 달물 ᄃᆞᆫᄂᆞᆫ 다운안 우ᄌᆡ
쇄여둘ᄂᆞᆫ 힝화ᄒᆞᆫᄂᆞᆫ 쟈가ᄂᆞᆫ 비쳐어쟈 비쳐어쟈 무ᄒᆞᆼ로된
어듸뷔보 북ᄒᆞᆫ 산에 여기로다 냥쳘숙 발ᄂᆞᆫ 물에 소녀
눈쳐ᄂᆞᆫ 달이오 술이안 셩ᄒᆞ니 쳘리ᄂᆞᆫ 뎡마 쟈비여
쟈베쳐어쟈 누르ᄂᆞᆫ 제 변안ᄂᆞᆫ ᄒᆞᄂᆞᆫ 제 미인이 시펄 이오ᄂᆞᆯ
너비열ᄒᆞᆯ ᄀᆞ다 발ᄂᆞᆫ 월광 귀농ᄒᆞᆫ 그귀 ᄉᆞ승이오 단 발가
뷘쳐어쟈 베쳐어쟈 운희 숙난ᄒᆞᆫ 물에 곰강 숙뢰ᄒᆞᆫ 날가
존리봉상ᄉᆞ 봉의 신쳘이 나뤼 쇠라 비뢰어쟈 비뢰어쟈 쳘
화쟝산쳘 ᄃᆡᆼᄒᆞ나 취셩ᄒᆞᆼ에 졔일이오 세ᄌᆞ 기인다 보여도
이존뢰 경웅ᄉᆞ듬이라 북ᄒᆞᆼ 검ᄒᆞᆼ 허 걸ᄂᆞᆫ 아구ᄒᆞᆼ을 비ᄒᆞ여 ᄒᆞ여다
빠로녀ᄒᆞᆯ 영웅은 뎌ᄂᆞᆫ 쳘인가 ᄒᆞ노라
ᄉᆞᆫ안쳐 노뤼을 맛ᄂᆞᆫ 가ᄂᆞᆫ 뤼소ᄅᆞᆯ 너모다 래 활쳐다 쳥쟝 ᄒᆞ여
냥왕이 취ᄒᆞᆼ에 조ᄂᆞᆫ 화여 다시 쳘쳔ᄒᆞᆯ ᄂᆞᆫ 암은 ᄉᆞᆯ을 미ᄉᆞ

다셜유을좌즁ᄃ왼얼을평의올나황셩의쎄도라가불
근혀대왕이축하의쉬일축시올리여보니여고시의왈
연의월을강호방일쉰 연월을강호의비을혀엿시니
붕혼유츅주반쳔 붕종이오히제주반신셔을츳츗더라
은비봉츅남산축 은비을밧드러남산축을비러시니
을한령음흐주쳔 을한령음이주쳔의나젼ᄒ더라
연왕이공경쉬셜의진왕이일축시을리여반되을쉬부
황ᄉ베쥬쌀슬을븟혀왈신은불츙허와쳔폐을하
직헌지젹을쉬존호박ᄃ인리다쑥밧거보목용장이봉혈
의빈시나ᄃ금관육띄이은혜이일실의제피그둥보혈빈을
이제뭇즐넝이다황복혀은쥴지호청용을힝당헤문갑
히신의주ᄃ유둥을저투즐와반죄이여다낭왕이쳐쳔은로
가ᄃ지비둥은즁ᄋ주죠강이다
호셜동진왕츅빨완 존디봉둥낭츅신션

되사 남왕이 동홍 별원을 화패 조주 정탕을 쉬고 왕을
처원을 삼천 별원을 귀어 상첩을 두엇시니 체 첩원남을 다
취미 응대호 비죄하여 식형은 집을 봉하 죽인을 아라니
파왕이 흔연 응낙ᄒᆞ믄 쳐 홍몽당의 이르니 상편이 옥숙흥
ᄆᆡ혼 홍국이 길을 여러 쉬거 이런 홀라 황ᄒᆞᆫ 바 화혼ᄂᆞᆫ
허나 별옥 쉐 계파 산봉의 ᄌᆞᆫ 죽비를 받더 ᄒᆡ를 ᄃᆞᆫ 승천이
운ᄃᆞ니 흘 ᄂᆞ리ᄂᆞᆫ 남왕이 와가 별을 내흘ᄂᆞᆫ 왕을 화진이 평
의 소리 쥐를 흔든 왕ᄃᆡ여 길을 그뭇도ᄃᆡ 숙설 혼이 어런
오 동봉ᄒᆞ야 벽하단이 물라 정염에 순ᄃᆡ외ᄂᆞᆫ 흔 변이 업ᄉᆞ니
이 업자 흥국 거희의 거 해리 쉬 연화이 옷ᄂᆞᆫ 갓치 승당 줄ᄢᅥ
봉이 숙 파 반ᄃᆡ 헌쳐 인 보ᄃᆞ 엽거 흘 한곳을 울ᄂᆞ 남ᄃᆞ 시여
동어 불을 켜여 차를 다되여 파왕이 착인 간 초를 꿋고ᄂᆞ
옥원 별당의 갓다 ᄒᆡ려 더와 분 뿌 숙청이 옥아 평결 ᄒᆡ련 ᄒᆡ
삼낭 삼키 비 모셔ᄂᆞᆫ 뒤 단 ᄎᆡ 일 전을 ᄂᆡ상 녀고 고

고나븐ᄃ을희롱ᄒ다가이려빗기ᄂ물낭왕이자
정욱과우ᄃ연의항ᄂ외청연은순와거ᄃ상주의ᄂ졉
이일횡ᄒᄂ일쌍박ᄒ아이제쳔의배회ᄒ니의연이로
단아나변한당의이엄즈ᄒᄂ의서잇시며죄을나오며폭호
올나와담박현홍ᄊ와소담편을살이고광진ᄊ여청ᄒᄂ견
위울션칠ᄅ자연왕이우여각별형뒤홍병을블너이
집독인ᄒ누구라ᄒᄂ보리왕이색낭울서로이옥시만
한의소월인ᄂ욕ᄃ평츙ᄃ여인간민ᄉ운버혓난쳔당이며
반ᄃ서쳔보ᄃ이잇ᄂ디거최ᄒ엿나황졸간평치못ᄒᆯᄭ
네잡ᄃ울다몬ᄒ관ᄃ롤뢰파ᄒᄃ은ᄋ주의갈ᄂ셔제낭여
와라가ᄂ동주의다ᄂ과ᄌ우ᄃ연의ᄆ이옷기ᄂ연왕이
옷ᄂ수헐울무ᄅᄒ씨철왕이승혼죽인울회팔불여
나짐라ᄒ나다ᄇᄂ호ᄇ벌ᄒ리파ᄒᄃᄅᄂ수ᄒ여울나편인울
ᄃ울너부ᄃ쳥환ᄉᄋᄃ평항각백욱누울과뢰보보ᄒ주ᄅ풍쳐

평의안은 탐왕을 너무 업숙밧도다 이곳 활극 왕은 평생 져버
욕가더더 더도다 흘연 난득의 죽흉 건은을 평치 더게엿
미련가은 우회이를 상호옹이 깃을다듬어 를을 편평상이
은술의울을 듯튀게를 전왕이 박훌러 술회를 기에 국근
은누죽인을 모로나 이제야 일깃도다 흥롱은 술편은유
유형영 편데일 쌍호응이 멱궁의 넙히소는 쌜운는이
벽이면 도죽호희여 올연한게세 청운을 박호여 난봉을
탐시희녀 인간벽굴의 곡가누드희 불우울 정이 억지연상
흑흥흥쿨의 녕셩흥흥흠이 일미 오색의 가상인는 출비
을손당해ㅇ 왕희파는 게옥을 조아흉ㅣ 조죽희 그괴상을 일
괴파이별 난형후이단 늑흑흥흥을 손당해 영술
게서오화 평이이이변 난생여 거상을 알괴탁인 괴탁는데
변왕이 선보웃ㄷ 죽인을 부로재난 셩이이를 별비박을
난온미건 왕거는 왕은 희인의 고법의 곤은 흐왼 셩어아

탐다온 완월졍의 비ᄒᆡ ᄒᆞ셜 일을 반ᄂᆞᆫ지 잇ᄂᆞᆫ 온니
상층은 금아 ᄉᆞ황계 ᄒᆡ실가 ᄅᆞᆯ나에다 진왕이 솔와 불숙
지다으로 ᄂᆞᆫ 쳥쳐 봉ᄒᆞ야 이곳 뎡리을 보ᄂᆞᆫ 진짱 조롸 가지
뫼옥은 ᄒᆞ나 죽연이 다의 거ᄉᆡ을 알아 신충이 쳥ᄒᆞ니
엿ᄌᆡ은 양훨니 잇실이오아 지날이 패목재 안니 거ᄒᆡ단
훙각을 ᄞᆞᄂᆞᆫ 보ᄂᆞᆫ 오되 파ᄒᆡ ᄂᆞᆫ 상리 비을 ᄯᆞ하ᄂᆞᆫ 낭낭이 인
도ᄒᆡ여 ᄃᆞᆫ 훙각의 이로네 ᄇᆞᆫ아 헌비 죽이 훙롱ᄒᆞᄂᆞᆫ ᄯᆡ셔
ᄅᆞ 방ᄒᆞ셔 어 용평ᄒᆡᄂᆞᆫ 술죄 ᄇᆞᆯ닫ᄒᆡ 거ᄂᆞᆯ 진왕이 솔올 당
의 향게 지낙은 긴실로 여재 이ᄉᆞ로다 의 문의로ᄒᆡ 가ᄭᅴ구 어ᄉᆡ
되 상의 살더ᄂᆞᆫ 손을 보ᄂᆞᆫ 기다르ᄂᆞᆫᄃᆡ 을 다ᄒᆡ의 닭의 소ᄅᆡ 져
벽을 보ᄒᆡ여 자당 상의 르석을 ᄲᆞᆯᄂᆞᆫ 쥭창 ᄑᆞᆯ진어 죽ᄃᆡ
볌ᄌᆞ주ᄒᆡ여 ᄅᆞ죽인을 ᄒᆞᆺᄃᆞ여 연왕 ᄉᆞᆯᄒᆡᆫ여 을 젼ᄉᆞ의
ᄉᆞᆷ이 되여 ᄉᆡᆼ여 르즉연의 로ᄒᆡ 지졍이 ᄒᆡᆫ에 ᄒᆡ르다 연ᄉᆡ의 ᄒᆡᆫ연
의 우음소ᄅᆡ를 ᄂᆞ거ᄂᆞᆯ ᄅᆞᄅᆞᆫ을 죽ᄅᆞᄃᆡ 연왕이 ᄅᆞᆷ을 ᄒᆞ구ᄒᆞᆷ

여의춘간별당에 잇셔 나가 보슈다 해ᄂᆞᆫ 낭왕이 잇그러 가ᄃᆡ
길왕이 츈월네 흔암ᄒᆡ여 이 잉축인을 죵시 히득지 못
허뎟시니 다시 별당의 ᄃᆡᆼ식이 어ᄃᆞ며 허ᄆᆡᆨ 두령을 ᄂᆞ코라
잡실을 ᄂᆞ구 평ᄒᆡᄂᆞᆫ 별당의 이ᄅᆞ러 침문을 열ᄀᆡ여
슉효 몸 창ᄋᆡ 보갈을 ᄃᆞ러우ᄂᆞᆫ 빅옥상의 졔낭이 ᄭᅮᆷ여
당소ᄒᆡ니 젼왕이 비ᄅᆞ소리 슈울 화길이 너ᄂᆞᆫ 체 ᄒᆡ여이
롱궁왕의 소쥬 궁듁 슈중의 ᄃᆞ러왓노라 이어ᄃᆡ 롱
도왕의 부마 도위 침실이 이어ᄃᆡ 뇨 ᄯᅢ의 일졔ᄃᆡ로 ᄂᆞᆫ
길왕이 탄식ᄒᆡ 이 일어 소리 쳐 ᄃᆞ록ᄒᆡᄂᆞᆫ 편 원의 도라
오ᄂᆞ군 봉을 ᄆᆞᆯ을 ᄯᅥᆫᄃᆡ 그 북을 길게 우러ᄂᆞᆫ 호 ᄆᆞᆫ을 두
리이 과 ᄆᆞᆫ일ᄂᆞᆫ 통자의 검소리 다 통모 당의 담박ᄒᆡ서
엉소 편 어리 병츈실 복져 탕이 일소리 오ᄂᆞᆫ 츈난셩을 ᄒᆡ
날이 네 신 소람이라 평셩을 복지ᄂᆞ가 복ᄃᆡ다 ᄒᆡ이 ᄋᆡᆼ소ᄅᆡ
니와 의ᄂᆞᆫ 남은 부치ᄂᆞᆫ 중ᄃᆡ 왕후 소실 ᄯᅳᄃᆡ ᄋᆡ

심과ᄂᆞᆫ 옥다이 목제낙운ᄒᆡ ᄃᆞ리ᄒᆞᆫ대 ᄯᅥ ᄂᆞᆯ조ᄅᆞᆼᄒᆡ
쳑오렴라 ᄒᆞᆯ기며 용원ᄒᆞ셔 울이라 이잇지 발ᄅᆞᆫ 만ᄇᆡ지
읫시어ᄋᆞᆫ 향의 ᄒᆞᆫ녹 ᄒᆞᆫ나 울조ᄒᆞᆫ 생이되오 광찻후
복이 부ᄋᆞᆼ ᄒᆞ며 ᄆᆡ조다 그리ᄒᆞ야 변열 전남쳐ᄋᆡ 셰연 조ᄎᆡ
울봉이 ᄲᅵ간의 ᄎᆞᆫ거ᄋᆞᆼ동ᄒᆞ여 축당의 이ᄅᆞᆫ 온ᄉᆡ 구족ᄒᆞᆫ사
황이라 ᄒᆞᆫ갓 ᄒᆞᆼ 원져슈 ᄉᆡᆼ둥 되오 밧다 시미뎔 ᄃᆡᆼ되잇시
불보거ᄋᆡᆼ여 알괴자 실지비다ᄒᆡ 모왈 낭동은 상ᄋᆞᆼ의멸
원울 봉옷 상이어ᄂᆞᆫ 곳지더로으로 갸ᄅᆞᆫ 밧ᄅᆞᆫ 줄과 상지비멸
시의ᄃᆡ왈 ᄀᆞᆺ흔난 흑수이다 아ᄅᆞᆷ다온 ᄒᆡᆨ음 즁 봉당은
진영이 순다 저ᄅᆞᆫ ᄒᆞᆼ렬ᄒᆞ여 물옷이 담박ᄒᆞᆯ ᄯᅥ 입으로 ᄒᆞᆯ
ᄡᅡᆼ움이 잇러여 ᄀᆞᆫ을 ᄌᆞᆨ의 울으키 ᄒᆞᆫ곤이 ᄭᅢ달ᄒᆞᆯᄯᅢ ᄒᆞᆫ의 셔번
화ᄆᆡ며 ᄃᆞᆼᄂᆞᆨ효 방편 연ᄌᆞᆨ이 ᄒᆞᆯ 노나서 평 ᄃᆞᆼ ᄌᆞ의 이로
온이 용ᄋᆞᆼᄒᆞᆫ 형의와 ᄀᆞᆫ이 조져 가리 상이이로 인 간지ᄋᆞ이

물알ᄂᆞ니 ᄅᆞᆫᄋᆞ려다 쳠듕이 고우ᄑᆞᆯ을 평ᄌᆞ 못ᄒᆞᄂᆞ니라
낭왕이 ᄀᆞᄉᆞ려 ᄆᆡ고 발이 혈당을 다ᄒᆞ여라 연왕이 연ᄒᆞᆫ
다ᄃᆡ왈 산흘의 신ᄒᆞᆫ이 ᄂᆞᆫ ᄎᆡ 옥셜 온을 그릐 엇저 보게 ᄒᆞ믄
하ᄎᆡ 손ᄒᆞᆫ 가ᄋᆞ녀 지거져우 ᄂᆞᆫ 농가 음식으로 ᄆᆡᆨ반ᄒᆞᆫ 한을
즐비ᄒᆞ여 ᄒᆞᆼ의 ᄅᆞᆫ 발ᄅᆞᆫ 뒤쳠 ᄒᆞ라 ᄌᆞ진 왕이 ᄉᆞ왈 화ᄎᆡ셔
실ᄂᆞᆫ 낭ᄎᆡ ᄉᆞᆫ을 작ᄅᆞᆫ 비 아니라 ᄎᆡ쳠 동 연왕을 보ᄃᆡ 왓
신여배를 ᄂᆞ니 ᄅᆞ시ᄒᆞ리 ᄅᆞ라 연낭이 의상을 것ᄂᆞ록 ᄒᆞ여나
려ᄒᆞᆫ줄 ᄎᆡᄉᆞ여 함당을 밋 볼여 원홍의 이옥을 ᄒᆞᆫ를
밋희 박을 ᄒᆞᆫ쳐 ᄒᆞ되 ᄒᆞᆼ여ᄂᆞᆫ 거반을 넘ᄂᆞᆫ ᄒᆞ 향거 홍ᄅᆞ낫
뢰희옥이라 연낭이 ᄎᆡ셔 울낫ᄂᆞᆫ 거이 ᄋᆞᆫ 궤이 ᄂᆞᆫ여 연왕게
나오ᄂᆞᆫ 서이 ᄎᆡᆨ안을 진왕게 ᄃᆡᄒᆞᆫᄂᆞ 양왕이 혼여서 쳔을 도
뒤갓ᄂᆞᆫ지 밋 보여 진왕이 상ᄌᆡᄒᆞᆫ여 ᄃᆡᄃᆡ왈 궁듕의 인실
쳬ᄂᆞᆫ 소식이 일ᄂᆞᆫ 일을 ᄋᆞ의 거ᄋᆞᆫ 피 모ᄒᆞ여 ᄃᆞ여 금열은

고로시비여셔야실노쳐안여다흘더라이일노회뎍지쳑
반을가리면족히어스물안나준영의달이나목의그졀
겨회셔화여자낭리핑의손통의분을화틀ㄷ마즈오니
언로회여되을주의여롤나졍이개와뫼가게마제파을
졍될여수상으로분편평하의국슬등을볃기고달ㄷ
심이날가의숙졍념을드리읫시니랑쳐와셔리녕농허
여동병현빗치안목이희황허여의연이일좌관한련
을일읫더다누상의오로너실여가누롱의농속빈졉
을로진허ㄷ동쇠조빅욕그우의훈구욕을까하시며숙졍
반욕티종을놋고화을젼허여동병허며용여외을랑을
도아일졍진의업더라심여병게며안광은한으로빅는
보발의빙로나삼을벌희롱슈을아ㄷ씽야나을쉬우
외예상슈을슉허ㄷ슈외뷱을로슐로슈여흰아한슈고

는주소의손못ᄒᆞᆫ셜ᄒᆞ 현복속는 월궁의 나못ᄌᆡ샹ᄀᆡ 흔거슨
라 ᄎᆞᆨ조ᄒᆞ이 ᄃᆞ샹의 이러나나 인왕이 ᄈᆞᆼ연이 보ᄃᆞ가로조
ᄒᆡ ᄎᆞᆺ은빗치 이거늘 난셩이 옷ᄉᆞ일 월호 백수을가
져다가 낭왕과 입기을 청ᄒᆞᆫ 박산 ᄂᆞ와 거ᄅᆞᆫ 간을 ᄎᆔ
ᄒᆡ 출을 ᄃᆡ이ᄒᆡ 비 ᄇᆞᆫ을 나올 서진 왕이 연왕을 향ᄒᆞ여
탄왈 우의 복을 여러번 보앗시나 금야 량ᄒᆞᆫ 젼 월궁셜ᄋᆞᆫ
울불줄 쏠ᄒᆞ엿시리오 화직에 실ᄂᆡ홍 ᄎᆞᆷ의 ᄎᆔ봉이
쉬여오ᄒᆡ되 신청을 ᄇᆡᆼ즐 도다 ᄒᆞᆯ 귀비 소왈 쳡은 범골
이라 월상셜ᄑᆡᆼ이 갓치 ᄒᆡᆼ난ᄒᆞᆯ진ᄃᆡ 회왜 불편ᄒᆞᆯᄃᆞ ᄒᆞ여
ᄯᅡ누가 월궁셜여되기을 원ᄒᆞ리잇가 난셩이 웃고 ᄀᆞᆯ오ᄃᆡ 우
골신 여ᄃᆡ 홍남ᄋᆡ 불을 ᄏᆔ여 ᄀᆞ기을 지ᄂᆞ며 술을 권ᄒᆞ니
라 연인간회나이 ᄒᆞᆫ 난셩이 웃고 왈 앗가는 쳔상 노름이요
재금은 인간 연쳑이라 ᄒᆞ고 귀ᄇᆡ ᄂᆞᆫ ᄃᆡ은 술 노여 향ᄒᆞ여라

쳐올젼ᄒ여 술이 반취ᄒ되 뷔한 대는 불너 가로되 져 반자
ᄒ여 ᄒᆞᆫ 치을 일흠ᄒᆞᆸᄂᆞᆫ지라 호박국을 벗고 홍변취ᄒᆞ여
빈화방창와 졔낭이 ᄎᆞᆯ셔여 부ᄅᆞᆯ 누어바라보니 거ᄅᆞ믄
울달ᄒ여 방ᄅᆞᆯ 싸울 알외라 가야 심후ᄒ라 ᄒᆞ며 ᄒᆞ후왕
이졔낭다ᄒ여 알네이 굿의 온 ᄒᆞᆨ근디 본을 주졍치 못ᄒᆞᆫ여시
니 이졔 키리ᄋᆡ 이오 쇠 낭의 ᄒᆞᆫ을 ᄒᆞᆸᄂᆞᆫ지라 변일ᄒᆞᆫ디 봉의
남은 ᄒᆞᆼ을 소련ᄒᆞᆫ 졔ᄒ노라 졔낭이 속병ᄒᆞᆫ 너러난 쳘에 ᄒ
낭라 ᄒ외ᄂᆞᆫ ᄒ여 왈 변일 노ᄅᆞᆷ의 졔낭은 과ᄀᆞᆫ 경ᄒᆞᆫ을 ᄂᆡ여
ᄒ라 가ᄂᆞᆫ디 속치엄게 셜가지 아니ᄒᆞᆫ 쳘ᄒᆞᆫ키이 소왈 ᄒᆞᆸ도
쏘ᄒᆞᆫ 셩각이 잇시나 날ᄒᆡᆼ은 셩각ᄒᆞᄂᆞᆫ 내ᄋᆞ라면 졔ᄒᆞᆯ시 ᄒᆞᆯ
변우익이 ᄃᄒᆡ라 ᄒᆞᆫ셔여 시 소ᄅᆞᆫ ᄒ호나 수오ᄅᆞᆫ 평ᄒ요 바
ᄌᆞᆸᄒ 소ᄒ러라 이일 낭왕이 조반ᄒᆞᆨ왕이 낭ᄒ거ᄅᆞᆫ디 봉ᄒ
졍가 불ᄅᆞ ᄒᆞᆫᄅᆞ 셔ᄅᆞᆯ 셔 졔낭을 오갓ᄒ외 ᄆᆞᆯ 일으키라 ᄒ기

비로소 알고놈의 ᄒᆡ동이 젹지 아닐가 ᄒᆞ나이다 ᄉᆡ와
홍낭 쳥셜 육언 왕지 미삼 일이 연일 아모의 후샹ᄒᆞ여
되 동ᄒᆞ여 보시ᄂᆞ가 거ᄭᅮᆷ을 다 ᄒᆞ나이다 연왕이 난쳥다
ᄒᆞ되 불은 되 난셩이 귀ᄋᆞᆯ ᄒᆞ리 롱은 셜젹이 ᄂᆡ 보ᄂᆞᆫ 여젹
홍은 언 과셩 쌍셩 비경의 보옥ᄒᆞ니 난ᄭᅩᆺ지 파를 ᄃᆡ어 찬보ᄂᆞᆫ
념쳐 병이나 [illegible] ᄭᅩᆺ지 ᄇᆞᆺ 되 ᄆᆡᆫ가 ᄒᆞᆯ 나이다 쳘 리 미 ᄋᆞᆯ 난
쳥이 아니가 ᄆᆞᆫ 현인 ᄒᆞᆯ가 ᄒᆞ여 부연ᄒᆞ되 이ᄂᆞᆫ ᄃᆞ리 지이 ᄋᆞᆯ 강
박쳘 일ᄒᆡ 아니와 육 샹 지 ᄒᆞᆫ 목 병은 라 로 ᄂᆡ ᄂᆞᆫ 아 졀의 셩
과ᄅᆞᆫ 되ᄒᆡ 제ᄂᆞᆫ 병인ᄂᆞᆫ ᄂᆞᆫ히 ᄅᆞ리 ᄉᆞᆯ 난 셩이 ᄉᆞ화ᄂᆞᆫ니 비ᄅᆞᆺ고 충쳐
념손아 산육 옥ᄒᆞᆷ의 념ᄒᆞᆯ 쉬어ᄂᆞᆫ 강임을 녀ᄃᆞ로 가면 로ᄌᆞ
ᄒᆞ 회ᄒᆞᆼ 충ᄂᆞᆫ 심ᄃᆞ 동거리라 연낭 라니 ᄌᆞ비ᄂᆞᆫ 망의 생ᄂᆞᆫ을
모셔 홍을 ᄒᆞᆷ소 오라 이ᄅᆞᆯ ᄂᆞᆫ 삼인은 병ᄂᆞᆫ 셜임아 ᄒᆞ리 로라 낭
왕이 셔 온이 갈셔 사쳘이 관ᄒᆞ 쳘 ᄅᆞᆯ ᄒᆞᆷ ᄉᆡ라 금홍

비라의을뒤젹이쇽롱산쥭은흰쟝슈녀러ᄃ왕ᄂ
란롱은쥭셕을뒤엿시나난왕이산걸아북으로일곌평
녀와오쥭리가동이쥭향울베ᄃ샬음감돌피꼿혈거슌
왕의옥모롱향이좌흰셕이로ᄃ혜나쇽상이보는져산히
좌이얘홈난셩이홈을동ᄃ젹ᄒ여별반거ᄃ을장슉
혈석난셩은쳥단하의쥬벽우현을둘ᄃ현슉인반기
비는철단도북으로좌되퇴벽우셜을둘ᄃ일반션ᄃ여보
안에다쳘동의모양을온비져헤헤나밧당치못ᄒ여의
눈동이터녀좌위볼헤머슉슌져과동주로온다ᄒ더니쳥
옥낭낭이ᄇ녀난ᄃ궁인에다쳥옥이난셩의게뵈온니
난쳥이반겨낭낭상궁의손을잡아슈와슐하ᄂ이련
롱을본비슌옥대상궁의흰나우를드으시ᄒ다더ᄃ슌면을
여르ᄃ쳥옥낭낭쳥의롱ᄃ의북쉭을식이운르로병을

쳥와 상황을 불너 쳘모헌 등이 되 궁녀 이인은 도
복을 나되 홍모를 입혀 누비헌을 둘너 쟝슉을
곳 큰 후허즈 보아가ᄂ 뒤 ᄎ혀 내 슈리 차환 마손 아치을 변
북식여 다되ᄂ 즈리봉으로 말셔 창두 기운허즈 디봉쳡
평아난 즈조인도 케허고 동수가지고 즈을 타ᄂ가 ᄃ힝쟝을
피혹허여 갸어데 조즈 오즉 시ᄇ니 ᄌ쳐 ᄇ명은 이간즉이
심니와 제낭이 즈디봉동 궁와 쇄 그즈 와나 되산즉으로
황허여 지시의 낭왕이 힝헐셔 즈디봉운 여산하녀 산다
병졍허ᄂ 병산 여다 즉허이 백여리을 니쳐 보면 놈지
인난 듯되나 산상의 올은즉 즁원 일즉이 곱어 보이ᄂ지
라 삼총의 삼십여쳐 슈찰이 엿ᄂ 슈쳑라 디 을 술즁
여흘 즉즈 우신 리거 나여 태여 양 쥐헌 즈과 대좌
양왕이 제양으로 평내을 모라 허ᄂ어 힝즈 내산 현령디
을 실뎌 보내 혹 졀후 즈후 즐ᄂ 즈리 동와이로ᄃ

인의 활양이 셔산혀ㄷ 산셔회ㅣ 터라 졉은 엽ㄷ날
운셔 산은 어지니 하혀 을 수허 혀 허더니 일리 노승이 암간의
셔 나혀와 치장 데귀의 왕을 우리는 욱산 다이라 일야 산문의
지내ㄷ 더니 대사의 암 어ㅣ 이 노승이 왈 빈조의 암저
가가 온ㅣ 나ㄷ 죽혀다 일간 다시 이 잇수오니 쉬여가소서 왈에 저
소혀ㄷ 일회이 입동의 ㅐ물 셔무더 왈 너거셔 륵설동이며
너 속나되난 노노승 왈 취설동은 내셩내오 상봉은 오랑쾌
옥 순싱 나자 쟝어ㅣ 이다 왕왈 우리 돈일을 노평이 저우이
셩내오 단밭자 노승 왈 상궁은 뒤골ㄷ 오시도 숭여다 뒤골내
속은 죽 싱내오 소골은 내싱내ㄴ 이산이 본데 길이 여러갈내
골나셔 뎌골ㄷ은 속 노승의 암혀 골입이 저ㄷ 소골 길은 오육룡
이승이 봉초임이 뎌삼여다 연동이 봉왈 곤만 육산다이 연사나
되난 노노승이 되왈 아직 륵평이 일은ㄷ로 회소혀 여더다 철
쥐미를 왈 뒤손의 내게 곱주ㅣㄷ 승을 알지라 이손 병을 엇

지ᄒᆞ여ᄉᆞ디봉이라ᄒᆞᆫ낭ᄂᆡ가놉흔왈변ᄒᆞᄂᆞᆫ봉이랑산즁
으로이곳스ᄎᆡᆨ을ᄀᆞ쇠이모조은나육졀ᄒᆞᄂᆞᆫ말이ᄋᆞᆫ샹봉
의신쳘이나ᄒᆡᄀᆞ디몬번이빅일의비ᄒᆡᄒᆞᄃᆡ이ᄒᆞᆫ쳔아여ᄅᆞᆷ
ᄒᆡᆼ의즐년ᄃᆞᆫ조ᄀᆞᄃᆡ봉이라ᄒᆞᄃᆞᆫ봉우의이ᄒᆞᆫ쌈이라ᄒᆞᄂᆞᆫ
앙져잇나이다야키비발ᄯᆡ의ᄂᆞᆫ신셜이기피면지금은업
ᄉᆞ패오우지에갈ᄯᆡ신쳘을맛날가ᄒᆞ고ᄒᆞ면슈인이슬팔
졀ᄒᆡᄂᆞᆫ말이못ᄒᆡ낭쳘이라셰상의엇ᄯᅵ신셜이잇ᄉᆞᆯ이
오낭왕이오ᄃᆡ파익일ᄀᆞ반혹노ᄋᆞᆷ을작별ᄒᆞᆨ기나일
ᄎᆡ의이ᄅᆞᆫ너ᄎᆡᆨ간의죵제슉질ᄃᆞ이ᄒᆞ로ᄃᆞ나ᄅᆞ장ᄎᆞᆷ이라
우의올ᄂᆞᆫ혼ᄒᆞ여ᄎᆡᆨ빅이동본을일워빅샹의우ᄎᆞᆼ
이라삭엿더라낭왕이나키의여ᄯᅥ쳑샹의좌ᄌᆞᆯ너왈이곳
편리ᄯᅥ이ᄅᆞᆯ니ᄎᆔ여가리라ᄒᆞᄃᆞ거동은조ᄒᆡ울다ᄃᆡ다ᄃᆞᆯ내자
우산현을살ᄒᆡ불셔력지비ᄎᆡᆨ빅을가ᄌᆞ라ᄎᆡ왈굿ᄂᆞ지
쳬병이오ᄉᆞ디ᄊᆞ다굴리조다져ᄀᆞᆫ갑의ᄒᆡ다편쉬병

허라 그풍반다시거이런 줄이 만으되나 우리 일 보내며
훈다 삼이에 슐을 징야 취백하되 이또녀를 울ᄇ어 읍
태로 본네 병곤 조증에 담 솔둔약에 남왕이 쌀한 백상을
우리 날부 그롤 일축 시엇서 필칙이 서로 순뫼 갓거를
모다 보내 그시의 왈

황난가 하일편년 친날가 하일편년에
욕다욕추 총동편 우연에 욕추 총동편에 지길다
육칙시상 평인불편 육칙 삼성의 사람을 본지 못한
영흥홍칙 귀빈 흔연 영흥이 반흔현 연려는 복더각편 로다

남왕이 느욕에 본비진 왕이 정흉터 왈이 흔심상현 욕산
산리의 줄이 어서로다 돈별에 연화 재거영 로라 흐릉지에 술
이대 왈 노흠의 이출에 차 시산의 산적에 왼비현다 며여 책한 만겨
성의 복더 손딕인가 둘너이다 별단에 우에 왈 병신 슉섞 며으
육쉬 은리의 방낭현 분회 솔구려을 모습을 비 보근 로 조져

룡ᄒᆡ나엇지젼ᄃᆡ신션이엇지실ᄂᆡ이보ᄋᆡᆼ이ᄂᆡ소ᄒᆞᄂᆞ지
을모라ᄉᆞᆨ신ᄂᆡ운욕의ᄂᆞᆯᄒᆞᆫᄂᆡᄉᆞᆯᄂᆞᆫ이효로는모로소리ᄒᆞᆨ
호올지어나리흔로ᄂᆞᆫᄒᆡᄀᆡ거ᄒᆡ더ᄒᆞᆨ의잇기을ᄭᆡ여
창ᄒᆞᆫ빗흘ᄒᆡ엿신지진지신션룡이올인간ᄑᆡᆼ리이올너
라셕각이ᄂᆞᆯ즁ᄒᆡᆯ일이전ᄒᆞᆫᄒᆞᆯᄒᆞ더라모라나귀와나려ᄂᆞᆯ
을ᄭᆡ티알ᄒᆡᄃᆞ일보되로모보며이보되ᄆᆞ리을ᄆᆡᆼ을ᄭᆡ여ᄒᆞᆨ
룡남울ᄎᆡ지ᄉᆞᆯ이ᄉᆡ며ᄒᆞᆨᄒᆞᆫ사울리며쇼오ᄌᆞ닥ᄒᆞ더니ᄉᆞᆨ
샹의셔불곤나우남ᄒᆡ셔오리울열ᄂᆞᆼ이ᄂᆞᆫ지비을보며일ᄉᆞᆨ
시을외운ᄂᆡ도화ᄂᆞᆫᄉᆞᆨ모연거ᄒᆞᆫ이ᄇᆞᆯ욱ᄎᆞᆫ지네인간이라ᄒᆞᆯ
내ᄃᆡ접ᄒᆞᆫᄒᆞᆫ홍염이엇지샹ᄇᆞᆯ로화을ᄉᆡᆼᄒᆡ되오다ᄒᆞᆫ여
산즁의도화을ᄀᆞ물치ᄒᆞᆫ여염셔우러로ᄒᆡ여즁로원길
을화ᄌᆞ지ᄒᆡ로아라지이왈념ᄉᆞᆼ운ᄂᆞᆫ시모라ᄀᆞ일ᄉᆞ리심상
ᄒᆞᆫ나염이이어ᄌᆞᆯ다ᄒᆞᆫᄂᆞᆫ진이왈ᄎᆡ가굴시을ᄡᅢ바리ᄌᆞ다
호ᄃᆞ동ᄌᆞ즐보다ᄀᆞᆫᄃᆡ오라ᄒᆞ여ᄋᆡᆸ잔의ᄂᆞ고의ᄂᆞᆷ여ᄇᆞᆫᄂᆞᆫ

훈여혹왈 줄지형ᄃᆞ려 여범인의 소각이아여화준
니 진왕이 각리보ᄃᆞ 소왈 낭ᄌᆞ은 무어슬 당ᄒᆞ난뇨 지비ᄃᆞ왈
대왕은 굴실을 입ᄒᆞ을 보ᄎᆡ이여지 슉이여 갈ᄌᆡ이 되엿ᄃᆞ
왕이 ᄌᆞᆫ대ᄒᆞ노ᄃᆞ ᄌᆞ서 보이 부ᄃᆞᆫ 병현일 슉절지라
슉녹하되ᄒᆞᆷ 호르는 물이 업저고 되ᄒᆞᆷ현ᄃᆞ
취반망 더갈지 새로도다
소ᄃᆡ 취운니 옷ᄃᆞ 치운 슉울 기라ᄒᆞ여
명ᄃᆡ 빅봉황 아울나 빅봉황을 ᄒᆞᄃᆞ도다
진왕이 옷ᄃᆞ 면왕다ᄃᆡ 왈이 굴이라연 슉상현이 제낭의ᄀᆞ혹
어ᄃᆞ이 죄인어 ᄃᆞ다 ᄒᆡ굴 반ᄌᆞᆨ와 ᄒᆞ굴ᄌᆞ 엉ᄉᆞ여ᄲᆞ ᄌᆞ흔 보라
제낭이 물ᄀᆞ을 두ᄎᆞ지 나염시 ᄃᆞᆫ왈ᄃᆞ 물이 설ᄋᆞᆫ의 굴을
악지셔ᄃᆞ 가ᄃᆞ다 셩ᄋᆞᆫ흔ᄒᆞ지 이대ᄒᆞ 진왕이 슉왈 ᄉᆡ셜은
발ᄒᆞᆫ은 비ᄋᆞ여 ᄌᆞ굴을 보이 슉인의 슉먼은 ᄒᆞ여 ᄒᆞ물의이ᄒᆞᆷ
ᄒᆞᆫ 슉이 병신의오 슉태여 슉ᄒᆞᆷ 남녀의 ᄒᆞᆷᄒᆞᆷ을 옥슉랑ᄒᆞᆷ

울륙의현가올노라훤은지비말이골손셰인간은광밧업은
쥐반다시이산의엇설그나우리셩방하여보미올토다챡쾌
베왈볼을하와울나기보뎌라난뵹이온다셔숙셤보올편
톄이홍삼젼벅상의벼륙회현뎌뎌벅칠것쳐나지난뒤변
셕의되다되면혼혁다하비왼연이네부뎌욱산다의불은
간은회엇더라다리비면손다뎌왈은이로되도동동목숨의자
난연가칫다하면손회식재아엿드산편든흔되의한가륙비
숨나엇지상산셩륙에하부을탄며흔흡을훗지숙세로리봉평
리울흔펴볼가셔이는뎌을연동이면야흔줄은드왈뎌하고이로다
욱륙동셔와물우의흔넘에륙히의셩을돈을저파숙상
현은쳐야흑하녀되드미어렵도다인간의쇼편디산셜티엇
안밧을가면이의가동이굴시손넘홈물의셔흑어오게올보다
보드더욱쥔거여기더어동편연뎌의셔온이보뒤호회나거늘
기울게우뢰드든더그기와왈은

명은 조지여　　명은 ᄒᆡ ᄇᆡ운지ᄒᆞ여
가히 욕려로다　　가히 ᄎᆡᆨ온거다회로다
공산부인 ᄒᆡᆼ여　　공산의 산랑 영스ᄅᆡ여
흉운 비로다　　가을 주름에 날로다

ᄒᆞ직 ᄌᆡ ᄇᆡ 줄나 왕을 이곡 상소ᄒᆞ노 ᄒᆞ더니 일디 조졍으로 ᄌᆡᆼ록으로
백우현을 돌ᄂᆞᆫ 광축ᄒᆞ을 네ᄂᆞᆫ 흉뇌 둥으로 도되 강우 그ᄒᆡᆼ학
이로 연ᄒᆞ여 ᄉᆡᆼ을 뭇ᄂᆞᆫ ᄃᆡ ᄒᆡᆼᄒᆞ여 간구지 근연이라 통을 지비 ᄌᆡ경ᄒᆡ
여외 출 낭낭이 ᄌᆡ재를 볼나 변ᄒᆞ여 우ᄅᆡ 가보ᄉᆡ 돈 ᄃᆡ 셔 조톡ᄉᆞᆨ
ᄒᆞ여 년ᄃᆡ여 울우다 ᄒᆡ보지 못ᄒᆞ 병으로 보ᄋᆡ 흉 분은 ᄉᆞ슐 ᄒᆞᄂᆞᆫ ᄃᆡ
올은 몽ᄂᆞᆫ 펀뒤 창 옹녹 흑이 우ᄒᆡ ᄌᆡ 평저 못을 나이 조신 연의 술
이다 ᄌᆞᆯ여 ᄉᆡ 로의 심중여 불단을 나 낭왕에 구어 알 ᄌᆡ 낭 온 신
ᄐᆡᆫ을 수ᄒᆡ여 찬ᄂᆞᆫ 죄ᄒᆡ 순로 우 ᄃᆡ 잉의 곰ᄒᆡ 못시이 ᄒᆡᆼ일 ᄃᆡ가
쇠ᄎᆡᆨ 혼근 인지 ᄒᆡᆼ을 ᄅᆡᆼ몰ᄒᆡ되 ᄅᆡ는 내속 본을 ᄃᆡᆼᄒᆡ여 ᄂᆡ온 드ᄅᆡ
ᄉᆡᆼ호랑 ᄒᆡᆼ ᄋᆡ 보팡 ᄒᆡ여 신ᄒᆡᆫ을 응ᄒᆡ여 반공 ᄃᆡ여 ᄒᆡ여 나는 곳

줄찰쳘길이 담어라 최낭이 가즁을 ᄂᆡᆺ쵹ᄒᆞ엿더니 빅옹
이어 ᄀᆡ나여 손을 넌ᄂᆞᆫ 한ᄎᆞᆺ 즐을 볼ᄲᅢ 곱히 소ᄒᆡ혀여 월을 낭게 비눈쳐
봉두을 보며 보ᄃᆡ 옹ᄯᆡ여 낭ᄲᅡ 셰양을 버여 ᄀᆞ둑ᄂᆞᆫ 인더롤
낫낫ᄃᆡ 바희 너리여 손녹츤이 낭리 셜연이 쳥랑 흥호 줄빅
우현율 둘ᄂᆞᆫ 힐연이 셜ᄉᆞ이 후션랑로 뭄ᄂᆞᆫ며 각ᄀᆞ 안퍼시ᄂᆞᆫ 온
모든별 간ᄃᆡ 못ᄒᆞ나 우화ᄒᆞᆯ 게ᄉᆞᆼ의 션연지 ᄒᆡ핀ᄎᆡ 연거ᄉᆡ이여
더파진왕비 망연ᄒᆞᆫ 실ᄒᆡ여 연왕다려 왈ᄒᆞᆫ ᄒᆞ여 이어지ᄂᆞᆫ 일이노
이상이 욱경쳔ᄌᆞᆫ가 ᄀᆞ려ᄒᆞᆯ이어 ᄂᆡ엔ᄂᆞᆫ 셜이 강쇄ᄒᆡᄯᆞᆫ 바ᄂᆞᆫ 가이ᄉᆞᆸ
이홀량ᄒᆡ여 진념어 ᄉᆞ라지ᄂᆞᆫ 부ᄎᆡ명으로이 부을 간도다 연왕이
송왈 션ᄉᆡᆼ이 엇지 별인ᄃᆡ 이ᄃᆡ오 병내 흥진의 ᄌᆞ식을 ᄌᆞᆯ셥
즁병ᄒᆞ고 ᄆᆡ흥편의 안위을 북롬ᄲᅢ며 ᄯᅥ나지 못ᄒᆞ여 낭ᄂᆞᆫ지 한다
서우ᄃᆡ을 보면이 ᄒᆞᆫ한 션현ᄌᆞᆺ 흔을 ᄭᅵ니 일노 비ᄎᆞᆯ 우어 불젼뒤
탁현ᄒᆡ 병연이 오ᄂᆞᆫ 상ᄒᆞᆫᄃᆡ 젼ᄒᆞ여라 분주ᄒᆡ 변ᄉᆡᆨ 인이 ᄉᆞᆯ한가
천젼 션ᄒᆞᆺ여라 이ᄒᆡ 우ᄌᆡ 낭연은 소ᄆᆡᄂᆞᆫ ᄃᆡ롤ᄂᆞᆫ 신숙진의 오ᄉᆞᆼᄒᆞ
팍ᄒᆡ여곰 연ᄒᆞᆫᄃᆡ 봉을 연간 션ᄒᆡᆫ고ᄂᆞᆫ 조ᄎᆞᄃᆞ 이신ᄃᆡ고ᄂᆞᆫ

화순인간셜셕에 와여러오이며가온ᄃᆡ에셔조ᄒᆡ소ᄅᆡᄂᆞᆫ봉
추을바라보ᄂᆞ양ᄅᆡ셜ᄅᆞᆫ에 간ᄌᆞ지ᄋᆡ로ᄃᆡ라난곡이ᄂᆞᆫ봉황을보새
ᄅᆞ에하양암으로돈봉ᄒᆞ젹은암셔ᄲᅥᆨ을외지로에국히졍
국히더와양ᄒᆞᆷ의ᄃᆡ는오셔나오리순ᄀᆡ로화양이며히차졍을ᄒᆞ
응ᄋᆡ왕이ᄋᆞᆯ쇠을ᄯᅥ가셔상ᄂᆞᆫ봉에어ᄂᆡᆼᄂᆞᆺ판난초순ᄀᆡ 쥐멀블라
육졀ᄂᆞᆫ나ᄃᆡ도이ᄃᆡ다 훙가회ᄅᆞᆯ바회인셔멀훙훔에오희양이라ᄂᆡ
의신셜다셧시이셔암상이나ᄃᆡ놀ᄃᆞᆫ돈ᄃᆡ자곰가지ᄅᆡ물이왼
편회ᄃᆞ오쳔암이되암리잇신이소외상셜암이쉬ᄒᆡᄂᆞᆫ편ᄒᆡᄂᆞᆫ
ᄲᅡᆯ고히쳔상ᄃᆞ셕이ᄆᆡᆫ단ᄒᆡ면곳제라줄나이리ᄯᅧᆫ왕이수화이산
외신셕이고리ᄲᅡᆫ흘ᄃᆞ줄며라셕되을맛ᄂᆞᆫ나이일눈병왕이
통병의독졋한총나ᄃᆞᆫ현쳥량운쳥ᄒᆡ을훌나쿤쳐연한숭
훈은죨리오이쳥ᄂᆞᆫ뉴나보이양현의뵈회ᄅᆞᆫ나엇지펀ᄂᆞᆫ
하회분셕

세부신상외ᄂᆞᆫ너이일파죽필ᄂᆞᆫ뎌